

목차

환영 및 전체 안내

- 환영사 02 최미영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환영사 03 장동구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축사 04 조규형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축사 05 한동만 |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워크숍 개요 및 일정 06 한희영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교육간사

강의 및 자료

- 머리말 09 최미영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강의록 I 13 수지 오 | Third Street School 교장,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강의록 II 18 차만재 | Emeritus Professor (CSU, Fresno)
강의록 III 21 이승민 | 새언약한국학교 교장
교사 교안 24 연수 참가교사
차세대 교사 보고서 34 연수 참가교사
참고자료 60 Reading List Based on Korean Stories
참가자 명단 65
임원 명단 67



최 미 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정체성 교육의 혁신을 위해 차세대 교사 분들의 더 많은 참여를 바라며...

차세대 교사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참석하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5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행사이고 저희 17대 집행부가 주최하는 첫 공식 행사이기도 하여 설레는 마음과 함께 반갑고 기쁩니다.

본 협의회는 지난 34년의 역사 동안 교사들의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동포 학생들에게 바른 정체성 교육을 하는 교육단체로서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큰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미국 한인 커뮤니티의 역사도 길어지면서 또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세월을 지나면서 한국학교 교육의 대상이 2세에서 3세와 4세로,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입양아 학생 그리고 한류 팬 등 여러 다양한 문화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다양해지면서 한국어와 영어를 다 잘하고 미국식 교육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차세대 교사들의 확충과 리더십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지난 32회까지의 본 협의회 학술대회의 주제에도 ‘차세대 교사,’ ‘차세대 지도자’ 등의 키워드가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차세대 교사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차세대 교사란 누구인가에 대해 바른 정의나 현재 한국학교에서 봉사하시는 차세대 교사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세대 교사만을 위한 연수나 리더십 훈련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차세대 교사 워크숍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해 보고 주말 한국학교에서 헌신하시는 차세대 교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차세대 교사의 힘을 크게 키워 나가야 하는 역사적 당위성 앞에서 차세대 교사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더 많은 차세대 교사가 교육의 혁신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차세대 교사 워크숍 외에도 앞으로 본 협의회 시작의 동기가 되었던 뿌리 교육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조용한 변화를 일으키며 본 협의회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낱씨의 본질과 본연의 목표를 재인식하며 21세기를 살아갈 후대를 교육하는 교육자인 우리 선생님들께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동 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차세대 교사 워크숍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차세대 교사 워크숍에 서북미, 콜로라도, 워싱턴, 중남부, 북가주 지역 협의회에서 선발되어 참석하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님 그리고 강사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신 최미영 총회장님과 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미국 이민 초기부터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쳐 정체성을 심어주며 함께 모일 기회도 제공하기 위해 한국학교를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소명 의식으로 봉사하신 결실이 미주 전역에 한국학교가 세워지고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활성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3년 전 미국의 한국학교가 연합하여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조직되어 미주 내 한국학교는 물론 해외 한국학교의 정체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감당해 오고 있으며, 뿌리를 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AT II 외국어 과목에 한국어가 채택되어 응시인원 증가하고 대학 입학에 도움도 주어 왔고, 또한 공립학교와 대학에 한국어 강좌를 채택한 곳이 늘어나고 꾸준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류의 열풍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각 한국학교 학생들의 등록 분포에서도 동포 3-4세의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세대 교사를 위한 교육 및 자질향상이 절실한 때에 본 협의회가 차세대 교사가 맡아야 할 필연적인 역할에 대처키 위해 차세대 워크숍을 시작한 것에 좋은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이 배우고 논의하며 나누는 유익한 기회로 활용하시고, 차세대 교사들께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우리 자녀들의 한국어, 한국의 역사, 문화교육에 좋은 성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 규 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 훈련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미영 총회장님, 그리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차세대 교사 워크숍에 참석하신 한글학교 교사 여러분! 2015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꿈과 바람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민족 이주사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러시아 한인 이주 150년’을 뜻깊게 기념하였습니다. 또한, 미주 동포사회의 자조 노력으로 미국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되는 쾌거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우리 동포사회가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자기 목소리를 냄으로써 모국과 거주국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희생 정신과 열정으로 차곡차곡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는 ‘차세대 한글교육’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기 뿌리에 대한 자긍심과 재외동포가 지녀야 할 자부심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場)이자 모국과 거주국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 훈련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복 70주년인 2015년에도 한국 정부는 재외한글교육 강화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재외동포재단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고 기획한 모든 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동 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차세대 교사 워크숍 개최를 축하하며...

제1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차세대교사 워크숍 개최를 축하드리며, 미국 서부 각지에
서 이번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글학교
교육과 선생님들을 위해 이번 워크숍에서 강의를 맡아주신 수지오교장선생님과 차
만재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2,000여 한국학교는 대표적 민족교육기관입니다. 특히,
미주지역 한국학교는 한인청소년들에게 모국인 한국의 언어와 역사, 문화를 교육함
으로써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 나아가 자랑스런 한인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
을 수행해왔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땀 흘린 덕분에 한국학
교 교육이 오늘날 이렇게 튼튼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고, 한인 청소년들이
Korean-American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3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힘차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
국, EU,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세계경제를 연결시키는 핵심축
이 되었습니다. 또한, UN을 비롯한 각종 국제무대에서 세계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을 넘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시대
가 임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
던 가장 큰 원동력이 교육에 있었음은 모두가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은 이곳 미주지역 주말 한국학교에서도 환하게 꽃 피고 있
습니다. 제가 북가주를 비롯하여 콜로라도, 유타지역 출장시 인근에 있는 한국학교를
방문하면 미주지역 한인동포사회가 한국학교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학교는 미주한인사회의 가장 튼튼한 기반입니다.

미주지역 한인사회의 중심이 점점 1.5세, 2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한국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이 자리에 계신 차세대 한국학교 선생님들의 역
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역사-사회 Framework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학교 선생님들의 눈부신 활동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미주지역 한국학교 차세대 선생님들을 위한 워크숍을 위해 애쓰신 재미한국학
교협의회 최미영 총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워크숍이 미주 한국학교 교육 발전의 큰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희 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교육간사

1 워크숍의 목적

- 1) 차세대 교사의 현재 위치, 현재의 문제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교사의 비전을 모색하여 본다.
- 2) 차세대 교사의 전문성을 특화시켜 한국어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높인다.
- 3) 차세대 교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으로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

2 추진 방향

- 1) 차세대 만의 특별한 환경과 재능을 토대로 한국학교에서의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 2) 차세대 선배들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차세대의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본다
- 3) 각 지역별 한국학교 수업 사례 발표와 문제점 토론을 통해 상호 정보 교환의 기회를 확대한다.
- 4) 차세대 교육자 간의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협력하고 교류를 증진의 토대를 마련한다.

3 시행 계획

- 1) 주관 :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 2) 후원 : 재외동포재단
- 3) 교육 일정: 2015년 1월 17 ~ 1월 18일 (양일간)
- 4) 장소 : Hyatt Regency San Francisco Airport
- 5) 대상 : 차세대 교사: 2세(미국 출생) 혹은 1.5세(대학교부터 미국에서 교육) 교사로서 3년 (5년) 이상 지역협의회 소속 교사로 활동한 선생님,
1차 참여 협의회(서부지역): 서북미(2명), 콜로라도(2명), 남서부 (2명) 북가주 (10명)
- 6) 참가자의 할 일:
 - 2세 혹은 1.5세로서 한국학교 교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letter 용지 3페이지 이상 (11번 글씨 1.5 라인) 와 파워포인트 6장 정도로 요약한 내용을 제출한다.
 - 설문지 및 교안을 양식에 맞게 제출한다.
 - 설문지 제출 일시: 2015년 1월 5일 밤 9시(서부 시간)까지 제출

4 교육 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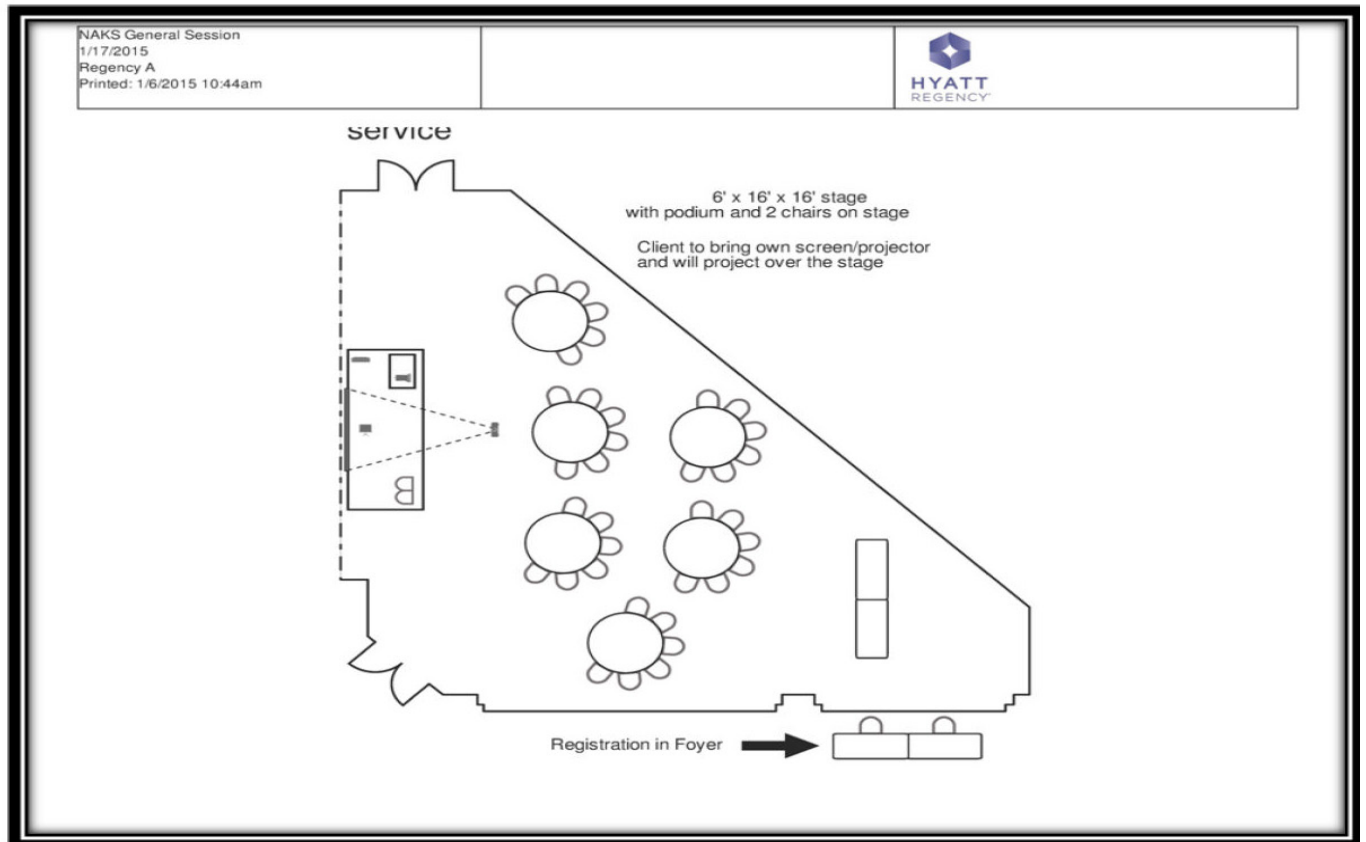
- 1) 차세대 교사 워크숍의 목적을 이루는데 적합한 커리큘럼으로 편성한다.
- 2) 워크숍의 취지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초빙한다
- 3) 소그룹 라운드테이블을 통하여 각 자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어 보다 비전적인 방향을 찾는다
- 4) 참가자의 워크숍 전 후의 관리를 통하여 네트워크의 지속성과 확대를 추구한다.

1월 17일 (토)

1:30	참가자 도착	
2:00~2:30	개회식	사회 : 한희영(재미한국학교협의회 교육)
	- 환영사 최미영(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 환영사 장동구(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 축사 조규형(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대독) - 축사 한동만(샌프란시스코 총영사) - 워크숍 개요 보고 - 참가자 소개 - 기념 촬영	
2:30~ 3:45	강의 1 " 차세대의 비전과 리더쉽"	
	- 강사 : Dr. Suzie Oh (Principal, Third Street School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3:45~ 4:15	한국 정부가 차세대에게 주는 메세지	
	- 김봉섭 박사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 부장)	
4:15~ 4:25	휴식	
4:25~ 5:40	강의 2 " Requisite Historical Perspectives and Education for Teachers of Future Generations"	
	강사 : Dr. Marn J. Cha, Emeritus Professor (CSU, Fresno)	
5:40~ 6:10	차세대의 소명	
	Jane Yoon (Principal, Silicon Valley Korean School)	
6:10~7:30	저녁 식사	
7:30~ 8:00	휴식	
8:00~ 8:30	강의 3 " 차세대와 1세대"	
	- Dan Lee (Principal, New Promise Korean School)	
8:30~10:00	그룹 토의 (라운드테이블)	
	주제 " 차세대의 현재와 미래"	

1월 18일 (일)

7:30~8:30	아침식사
8:30~9:00	정리
9:00~9:30	차세대를 위한 선배의 조언 Susie Coover (Principal, Stockton Bansuk Korean School)
9:30~11:00	라운드테이블 및 토의 결과 발표
11:00~11:30	수료식



1 머리말

차세대 교사의 현 주소

최 미 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들어가는 말

재외동포재단의 ‘2014년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에 따르면 한글학교(또는 한국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 수는 116개국의 총 106,397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15,333명인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대륙별로 나눌 경우 한글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북미로 미국과 캐나다 등 두 나라에만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인 1,070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지역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은 57,702명에 이르고 교원 수도 9,939명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 (재외동포재단, 2014).

숫자 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주말한국학교의 역사도 50년이 되어 가고 있고 교육 대상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주로 2세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오늘날에는 3세와 4세 학생들로 넓혀졌고, 다문화 가정 자녀, 입양아, 한류 팬 등으로 한국학교 교육 대상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문화권에서 오는 학생들과의 문화적,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중 언어 문화권에서 성장한 차세대 교사들의 참여가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차세대 교사의 필요성과 과제

본 협의회 학술대회 주제에도 여러 차례 ‘차세대 교사’ 혹은 ‘차세대 지도자’라는 키워드가 사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주말한국학교 교육에서 차세대 교사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짐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까지 차세대교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차세대 교사의 숫자가 얼마인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 차세대 교사 워크숍을 통해서 차세대 교사의 정의, 현재의 문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알아보고 차세대 교사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더 많은 차세대 교사가 교육의 혁신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본 글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주말한국학교에서의 차세대 교사에 대하여 정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찾아 보았다. 앞으로 차세대 교사 워크숍과 교사연수회를 통하여 차세대 교사에게 필요한 특화된 연수회와 네트워킹 그리고 리더십 강화 등이 우리 앞에 놓인 숙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차세대 교사는 누구인가?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1.5세 혹은 2세 교사를 차세대 교사로 생각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시절에 미국에 와서 중·고등학교부터 미국에서 교육받은 교사들을 일컫고 있다. 북가주 지역에서는 대학교부터 미국에서 공부한 교사를 차세대 교사로 보고 2년 이상 한국학교에서 근무하면 표창을 주는 형식으로 그들을 격려한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부터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잘하는 상황이어서 이미 한국학교의 교장, 협의회 회장직 등을 많이 맡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 교사들은 주로 부모가 한국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분의 자녀인 경우가 많다.

차세대 교사들이 교사로 봉사하면서 느끼는 좋은 점은 무엇일까?

차세대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한국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대한 좋은 점을 나열하였다 (미주 한국일보, 2013).

- 한국어 차세대 교사는 본인에게 혜택이 있다.
- 자원봉사를 한다고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배려해 주고 혜택을 준다.
- 한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은 부모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한국어를 못하는 친구들보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다.
- 나도 부모님의 강요로 한국학교에 다녔던 기억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다.
- 멘토처럼 고민이나 진로 상담을 해 줄 수 있다.
- 부모의 문화권은 내 뿌리에 대한 이해이자 다른 문화권의 이해 포용력을 넓히는 첫 길이다.

차세대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중 문화에 대한 이해가 동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 사회가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봉사자에게 배려와 혜택을 주고 있음을 알려주기도 한다.

차세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난 2008년 본 협의회 학술대회 기조 강연에서 이광자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은 차세대 교사 혹은 차세대 지도자의 역할에 관하여, 아직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하거나 눈에 드러나는 업적이 보이지 않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당당히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교사로서 기본적으로 민족의 자긍심이 있는 사람, 올바른 지도자 훈련을 받은 사람, 스스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이광자, 2008).

즉 동포 학생과 학부모가 이중문화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가진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며 카운슬러의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며 현지인의 도움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차세대 교사는 한국과 현지, 한국문화와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둘 사이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차세대 교사의 과제는?

차세대 교사들은 본인들이 한국학교에서 동포 학생들을 가르치고 봉사를 함으로써 갖게 되는 혜택이 있음과 동시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2004년 필라제일교회 한국학교 배재령 교사는 본 협의회 학술대회에서 강의하면서 차세대 교사가 넘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1.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
2. 1세 교사들의 열정에 비해 차세대 교사들은 열정이 부족하다.
3. 차세대 교사는 Transitional period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1세 교사들이 사용하던 커리큘럼이나 교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4. 1세 교사들이 가진 좋은 정신과 아이디어를 잘 응용하여 다음 세대에 전해줄 훈련이 필요하다.

다음은 위의 배재령 교사가 차세대 교사로서의 어려움을 발표한 지 10년 후인 지난 2013년 학술대회에서 최연소 1.5세 교장인 북가주 새하늘한국학교 송아리 교장과 연합뉴스의 인터뷰 내용이다. 송아리 교장은 무작정 한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 만을 기대하고 연수 프로그램이나 교사 훈련 등은 부족한 현실을 토로하였다.

“왜 한국어를 그것밖에 못 하느냐’ 고 말하기보다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마음을 격려하고 소속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재미한국학교 최연소 교장인 송아리(31) 산호세 새하늘한국학교 교장은 “차세대들에 무작정 한인으로서의 자부심, 한국학교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며 “짚대를 낮추고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차세대 교사가 나올 수 있을 것” 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학생들과 정서적으로 가까운 1.5세나 2세 등 차세대를 보조교사로 뽑아 한국어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리더십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세대를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시피 해 한국학교 교사의 ‘세대교체’ 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그는 “미국 동포 중에도 외국인과 결혼해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계 혼혈 등 다양한 학생을 품을 수 있도록 한국학교가 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NAKS 등 한국학교 모임이나 연수프로그램에서 다양성과 관련해 한국학교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10년이 지났지만 차세대 교사들이느끼는 어려운 점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고 차세대 교사만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과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된다. 주말한국학교에 차세대 교사의 부족에 관해서 또 다른 의견은 현재 한국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이라는 점이다. 남가주 한국학원 김홍선 교육감(2013)은 젊은 교사 지원 부족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과거와 달리 교사를 지원하는 젊은 분에게 ‘봉사정신’ 만 강조하기가 어렵다. 10년 이상 똑같은 보수문제도 젊은 교사들의 사기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주말 한국학교는 학생들이 내는 200달러 정도의 등록비로 운영되고 있으나 학교 렌트와 행사비용으로 충당하고 나면 교사들에게는 교통비 명목으로 200~300달러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세대 교사들에게 봉사정신만을 강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의 차세대 교사를 위해서

결론적으로 10년 전이나 현재나 차세대 교사가 많이 나와서 동포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해 나가야 하고, 그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문화권에서 갈등의 요소를 이해하고 해결점을 함께 찾아보며, 현지인과의 접촉점도 될 수 있으므로 차세대 교사의 위치와 양성은 매우 중요함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으로 차세대 교사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은 성취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며 부모 세대를 더 잘 이해하고 정체성도 바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차세대 교사라고 해서 모두 교사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그들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사 연수와 기다림의 배려가 필요하다. 한국어, 한국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1세 학부모에 대한 이해, 커리큘럼 및 교수 방법 등에 대한 훈련 및 실제 연습이 필요하며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차세대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역량 있고 전문성을 갖춘 차세대 교사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연수와 모임에 초청하고 차세대 교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본 협의회 연수에 꼭 들어가야 할 주요한 사항이다. 또한, 한국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참고 문헌

미주 한국일보(2013). 차세대 교사들의 한국어 사랑.

<http://sf.koreatimes.com/article/831425>

미주 한국일보(2013). 한국학교 교사 노령화, 20~30대는 없어요.

http://www.kosaa.org/kosaa_press_release/167/?lan=ko&list_style=calssic

배재령(2004). 차세대 교사와 한국학교.

제22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강의를 pp.100-101.

연합뉴스(2013). 이민 110주년 맞은 미국 한국학교, 변해야 산다.

<http://www.detkr.com/print.php?idx=29318>

이광자(2008). 차세대 지도자의 교육과 교사의 역할.

제26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강의를 pp.55-57.

재외동포재단(2014). 2014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2 강의록 I

리더십과 변화관리

LEADERSHIP on Facilitating Change & Leaders as Learners

수지 오 교장

Third Street School,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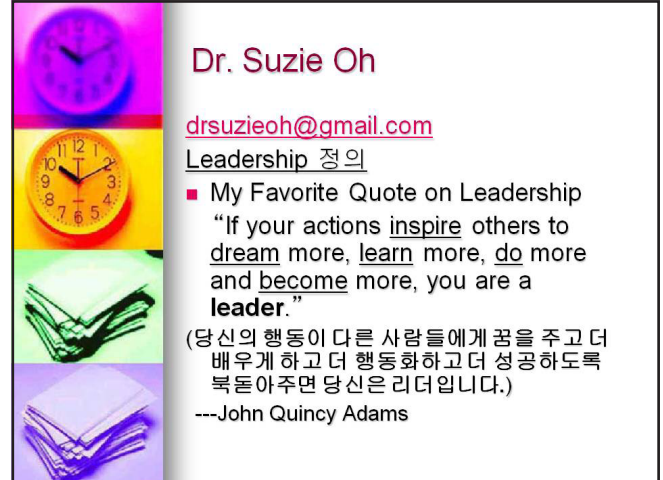
1



**LEADERSHIP on Facilitating Change
& Leaders as Learners**
리더십과 변화관리

Dr. Suzie Oh 수지오교육학박사
drsuzieoh@gmail.com
Principal, 로스앤젤레스교육구 교장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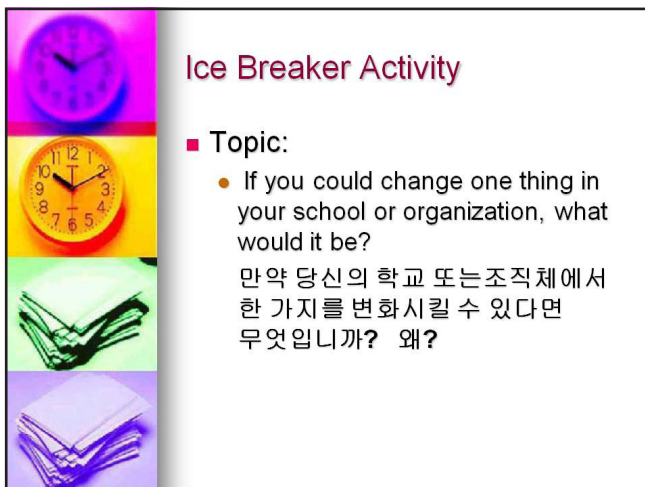
2



Dr. Suzie Oh
drsuzieoh@gmail.com
Leadership 정의

- My Favorite Quote on Leadership
"If your actions inspire others to dream more, learn more, do more and become more, you are a **leader**."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더 배우게 하고 더 행동화하고 더 성공하도록 북돋아주면 당신은 리더입니다.)
---John Quincy Adams

3



Ice Breaker Activity

- Topic:
 - If you could change one thing in your school or organization, what would it be?
만약 당신의 학교 또는 조직체에서 한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무엇입니까? 왜?

4



DEFINITION of Leadership:
리더십의 정의

- **Transformational Leadership**
(변화시키는 리더십)
- **Facilitative Leadership**
(조종하는 리더십)
- **Servant Leadership**
(봉사하는 리더십)
- **Connective Leadership**
(연결하는 리더십)

5



CHANGE Management
변화 관리

- From the Current State to the Desired State
(현재 상태에서 바람직한 상태로 바꾸는 일)

6



- “Change starts with the passionate few. You must build a community of learners with common purpose, collective action and continuous learning.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meaning is an essential characteristic of a learning organization.”
(Peter Senge, *The Fifth Discipline*, 1990)
피터 생기의 말-”배움의 공동체”

7



CHANGE = COMMITMENT
(Michael Fullan, *Leading in a Culture of Change*, 2001)
변화 = 전심전력

- Enthusiasm (적극성)
- Energy (에너지)
- Hopefulness (희망)
- Moral Purpose (도덕적 목표)

8



- Understanding Change(변화 이해)
- Coherence Making (일관성)
- Relationship Building (인간관계)
- Knowledge Creation and Sharing (지식창조 및 공유)
- Sustainability (지속성)

9



- Implementation Dip
(실천 중의 좌절감)
- Redefine Resistance as a Potential Positive Force
(저항을 긍정적 힘으로 재정립하기)
- Study Groups (스타디 그룹)
Life-Long Learning, Collaboration, Reflective Practices---Provide continued support and follow-up after the initial training

10



Sharing my Story in School Reform as Servant Leader, Facilitative Leader, Transformational Leader and Leader as Learner (학교 교장으로서는 학교개혁 이야기)

- LEARN (Los Angeles Educational Alliance for Restructuring Now) Training (1998) by the UCLA School of Advanced Management Program (AMP)
- Doctoral Degree in Educational Leadership (1998-2003)
- AB 75 (Bill Gates Foundation) Training (2005)

11



Great Quotes from Great Leaders (훌륭한 리더들의 인용구)

1. "I am still **learning**. That is an important mark of a good leader. You need to know you don't know it all and never will."
(나는 아직도 배웁니다. 늘 배우는 리더가 좋은 리더의 조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Anne Mulcahy, Former CEO, Xerox

12



2. "The true leader is always **listening, learning** and being truly open to the world around him." (진정한 리더는 항상 경청하고 배우고 주위의 세상에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Jay Gellert, CEO, Health Net

13



3. "Commit to continual **learning** and improvement in everything you do. Never be complacent that you've completely mastered a skill or area of expertise. Be a **life-long learner**."
(평생 배우는 자가 되세요.)

---William Cavanaugh, CEO, Progress Energy

14



4. "To be successful, one must be willing to **learn** and apply new concepts and not be afraid of **change**." (리더로서 성공하려면 기꺼이 배우고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Craig R. Barrett, CEO, Intel Corp.

15



5. "Know yourself. Focus on using your strengths and talents and **learn** how to delegate your weaknesses. Know that others have great ideas and different talents."
(자신을 아십시오.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이용하고 자신의 약한 점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십시오. 타인에게도 좋은 아이디어나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Toby Hynes, President, Toyota, Houston, Texas

16



6. "You can't do everything well. Pick the things that matter most and concentrate on getting better and better, little by little, at those things."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몇 개를 골라서 그 분야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십시오.)

---Reuben Mark, CEO, Colgate-Palmolive Company

17



7. "Leading is giving. Leadership is a gift of oneself. It is offering oneself and one's spirit."
(리드하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자신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Lee Bolman & Terry Deal, in *Leading with Soul*

18



8. "Anyone who stops **learning** is old whether at twenty or eighty. Anyone who keeps **learning** stays young."
(배움을 중단하는 자는 20세든 80세든 늙은 사람입니다. 계속 배우는 자는 젊음을 유지합니다.)

---Henry Ford

19



■ I would like to ask you to choose one of the quotes that may strike your emotional chord and share your thoughts on it with your partner. What do you derive from that quote? Why did you choose that quote?
(인용구 중 가슴에 와닿는 것을 선택해서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옆사람과 얘기를 나누십시오.)

20



■ Being a Teacher is an amazing profession. It is challenging, dynamic, energizing, and draining, but most of all, it is rewarding.
(교사란 직업은 도전적이고 역동적이며 활기를 갖고 기운을 다 소모하게 만들어 무척 힘들지만 무엇보다 보람을 안겨주는 직업입니다.)

21



■ Everyone who ever went to school claims to be an expert. Everyone has a vested interest in education.
(모두가 교육전문가라고 생각함)

22



■ I have been working for the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for 39 years serving in a variety of capacities including a classroom teacher, program coordinator, instructional advisor, central district specialist, assistant principal and for the last 21years, principal. However, I am still **learning**.
(미국 교육계에서 39년 동안 다양한 직책에서 일해왔고, 그중 지난 21년간은 교장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배울게 많습니다.)

23



- In closing, if I may quote Ralph Waldo Emerson, "Education is **learning** what you didn't even know you didn't know. The more we **learn**, the more we realize how little we really know."
(마지막으로 랠프 왈도 에머슨이 한 말을 소개합니다. "교육은 내가 무엇을 몰랐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가 실상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게 됩니다.")
- I would also like to share his poem on "What Is Success?".
(그가 쓴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4



What Is Success? 성공이란?
Ralph Waldo Emerson

- To laugh often and much;
(자주 웃고 많이 웃는 것;)
- To win the respect of intelligent people and affection of children;
(지성적인 사람들의 존경과 어린이들의 애정을 받는 것;)
- To earn the appreciation of honest critics and endure the betrayal of false friends;
(정직하게 비판해주는 사람들을 감사하게 여기며 가짜 친구들의 배반을 참는 것;)

25



- To appreciate beauty, to find the best in others;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알고 남의 장점만을 볼 줄 아는 것;)
- To leave the world a bit better, whether by a healthy child, a garden patch, or a redeemed social condition; (건강한 어린이나 정원이나 개선된 사회조건으로, 더 나은 세상을 남기는 것;)
- To know even one life has breathed easier because you have lived.
(당신의 삶으로 인해 누군가 더 편히 숨쉬는 세상이 되었음을 아는 것,)
- This is to have succeeded. (이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26



REFLECTIONS:

1. What have you learned?
오늘 배운점 또는 느낀점
2. What have validated your thinking on leadership?
리더십에 대해 재확인한점

차세대 교사의 역사 의식

Requisite Historical Perspectives and Education for Teachers of Future Generations

차 만 재

프레즈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정치학 명예교수
중가주 한인 역사연구회 회장

Marn J. Cha, Ph.D., Professor Emeritus of Political Science,
Calif. State University, Fresno, CA &
President of Central California Korean Historical Society

A history teacher may need to consider three elements. First is his/her teaching objective. Why teach history? What goals and objectives is one's teaching history to serve? Second is choosing what to teach in history that will serve the stated goals and objectives. Third relates to how. How can one teach history as effectively as possible? That is, an exposure to various history-teaching skills, methods and approaches.

역사를 가르칠 때 교사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교수 목표이다. 왜 역사를 가르치는가? 역사를 가르침으로 주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해야 한다. 둘째, 정해진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내용을 선택할 것인가? 이다. 셋째는 어떻게라는 명제와 연관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가?는 여러 다양한 역사교수 기량과 방법,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Why teach history?

- 1) Utilitarian as opposed to value-free perspective on history-teaching;
- 2) Ethnic minorities vs. the mainstream America; racism, glass ceiling, rac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pportunity structure, ethnic enclave vs. social integration, and a need for a healthy self-conception.
- 3) History's relevance.
- 4) Freedom vs. necessity.

왜 역사를 가르치는가?

- 1) 역사 교육에 대하여 가치중립적인 입장과 반대되는 공리주의적 접근
- 2) 미국의 주류사회 대 소수집단적 접근: 인종차별주의, 유리 천장의 존재 (여성이나 다른 집단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 인종에 따른 장점 및 단점, 기회주의적인 구조, 소수민족 지역사회 대 사회통합적 접근, 자신에 대한 건전한 생각이 필요함
- 3) 역사의 타당성
- 4) 자유 대 필연성

■ What in history to teach?

- 1) Ordinary people focused in contrast to great personalities and events emphasis
- 2) Spati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when event X occurred in Korea, what happened elsewhere? Time and space crossing.
- 3) Sociology of history perspective; what made it happen and why?
- 4) Positivist approach; proof driven by statistics and quantification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 1) 위대한 인물과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것과 동시에 보통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둔다
- 2) 공간적, 비교문화적인 관점 즉 한국에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간과 공간을 서로 대조 검토하기
- 3) 역사의 사회적 관점: 어떤 이유로 그 사건이 일어났으며 왜 그런가?
- 4) 논리실증주의적 접근법: 통계와 자료를 통하여 증명해 보기

■ How to teach history effectively?

- 1) Stoking imagination; hypothetical thinking; what if ?
- 2) Experiential; hands on approach; virtual as well as real
- 3) Model building; reconstruction of the past; visualization
- 4) Role playing exercise; e.g., play, debate

어떻게 효과적으로 역사를 가르칠 것인가?

- 1) 상상력 일으키기: 만약 이랬다면? 이라는 가설을 세워보고 생각해보기
- 2) 실험적인 방법 사용: 직접 해보기, 실제와 가상적인 방법 사용
- 3) 모델 구성: 과거를 재구성 해보기, 시각화하여 재현하기
- 4) 롤플레이를 통해서 연습하기: 연극, 토론 등

■ Teacher Training and Education

- 1) Workshop, on and off campus, on line
- 2) Broad based as opposed to a single country oriented
- 3) World civilization in parallel to Korean history
- 4) Syllabi exchange; sharing reading list; history club

교사 훈련과 연수

- 1) 워크숍, 학교내 혹은 외부에서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 2) 한 나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민족을 넓게 공부하기
- 3) 한국사와 다른 나라의 문화도 함께 연구
- 4) 교육자료 및 지도안 공유하기, 참고 도서를 서로 나누기, 역사 클럽 만들기 등

■ Conclusion

- 1) Interest vs. goal driven
- 2) History: a normative enterprise
- 3) Competing values and perspectives
- 4) America and the rest of the world

결론

- 1) 흥미 위주와 함께 목적 지향적인 방법을 추구
- 2) 역사는 규범적인 사업이다.
- 3) 가치와 관점을 모두 알아가기
- 4) 미국과 다른 나라에 관하여 알기

4 강의록 III

소통과 공감: 1세대와 차세대 교사 및 교육

이 승 민

새언약한국학교 교장

학교는 즐거워야 하고, 서로 통해야 한다. 즐겁지 않고, 통하지 않는 조직은 생명력을 잃은 조직이다. 학생과 교사, 부모와 교사, 교원 상하좌우 막힘 없이 시원하게 통하는 학교에서 화합도, 발전도,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한국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국의 언어와 얼, 문화와 뿌리교육을 통해 소통과 공감을 만들어 내기 위한 봉사의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시작되었으며 3~40년 장기 근속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노력으로 오늘의 한국학교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학술대회에서 봉사의 마음으로 학교에서 헌신하시는 여러 세대의 선생님들을 뵈는 때 마다 가슴이 따뜻해 진다.

그간의 노력을 기반으로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아이들은 무척 많이 변했으니, 교사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한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는 이제 무의미하며 시대에 맞는 교육 방법과 목표가 필요하다. 이에,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습득하고자 교사연수회도 참석하시며 사이버대학의 강의도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 그 시대에 맞는 교육 방법과 목표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교육의 목표는 스스로 지식을 조작, 창조 등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다.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협의회와 그 이상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각각의 한국학교에서 앞으로의 10년, 20년 그리고 30년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차세대 교사라 할 수 있다. 세대간 격차는 보편적으로 모든 시대에서 나타났다. 과거세대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동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른 결과이며 미래에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격차를 해소하기 보다는 이해와 지도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다. 1세대와 차세대의 세대차이는 유지되어야 하며 사고방식과 경험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교육을 받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4년과 대학 교육 받았기에 흔히들 말하는 1.5세이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좋아했고 배웠으며 몸에 익혔으나 대학 졸업 후 한국과 관련된 직장 일을 하면서는 잘 이해 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와 관습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많이 극복할 수 있었으며, 문화와 역사관에 대한 의식을 함께 하였기에 가능하였다.

미국에서 차세대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언어 교육은 한국학교에서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규학교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한 부분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버지니아에서 동해병기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동해병기 서명운동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정규 학교에서 배워왔기에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한국학교는, 기본적인 언어 교육을 떠나 역사관을 심어주고 문화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교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학생들이 세상을 만나는 창문은 교사이다. 교사가 어떤 창문을 가졌는가에 따라 학생의 세상을 달라진다. 학생들이 교사를 통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한국학교 교사에게 달렸다. 이렇듯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자, 한국을 소개하는 안내자 그리고 문화 교류에 앞장서는 외교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 감사 드린다. 하지만, 이는 교사 자신이 올바른 역사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역사관과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1세대 교사들은 차세대 교사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정체성 보다는 한국어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차세대 교사들의 역사와 민족성에 대해 더 노력하여야 함을 종종 이야기 한다.

한국은 운명적으로 나의 모국이다. 하지만, 한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접하는 많은 아이들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모국으로 여기며 자라고 있다. 차세대 교사들 역시 미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한국을 부모님의 모국으로 인지 시키고 좀 더 깊은 애정을 가지며 소통하며 공감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이해하며 이들의 방식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한국학교와의 인연은 좋아하는 전도사님과 선배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학교에서 봉사를 시작한 고등 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대학생부터 가능하다고 하여 처음에는 아이들 교통편(ride)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학교 시작 2시간 전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수업시간은 선생님들 잔 심부름해주고 학교 종료 2시간 이후에나 운전이 마무리 되었으나 즐겁게 봉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대학생이 되면서는 학교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한국어를 영어가 부족한 1.5세대를 위해서는 토플과 SAT (SAT II Korean을 포함 영어와 수학)를 준비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기존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한국어 외의 수업들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바뀌어 나감을 보게 되었다. 1.5세, 2세 그리고 3세 아이들이 하나될 수 있는 장을 한국학교를 통해서 마련해 주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진 않지만 교장의 일에 전념하고 지역 협의회에서 임원으로 일을 시작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학교 대표자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어색했고 잘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불편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와 소속 협의회 변화에 작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급격한 사회 변화는 문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를 가져 오고 있으며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발생하여 갈등과 대립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동서양의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과 교사들 사이에서 세대 차와 교육관의 차이가 현격하여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요즘 젊은 교사들이 교장이나 선배교사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의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교육방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의 95.6%가 교단에서 심각한 세대 차를 느낀다고 답했다 한다. 같은 문화권의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러하데, 서로 다른 교육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한국 학교는 어떠할까? 구세대는 신세대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방적인 데 대해, 신세대는 구세대의 권위적이며 경직,정형화된 사고에 대해 세대 차를 느낀다고 한다. 한 문화 가운데에서 교사의 책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느끼는 세대 차를 문화가 다른 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들이라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세대변화, 교육 학습의 개념변화, 세기별 직업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구성 방향의 변화, 교사의 역할 변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문화 차이등 교사간 서로 다른 행동의 경향성을 가지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게 된다. 교사간의 차이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단지 다를 뿐이다. 다른 사람과의 행동유형의 차이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관계형성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뿌리 교육이라는 큰 명제 아래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세대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사는 새로운 교수법의 터득을 통한 학생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사간의 소통과 공감을 먼저 형성하고 하나됨을 실천하여 한국을 알아가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이정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한국학교에 나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언어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은 연령에 상관없이 커다란 개별 차를 보인다. 또 학습자의 학습 동기 역시 장래 직업 선택의 목적, 부모의 강권, 한국인임을 자각한 본인의 필요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교사는 우선 이러한 학습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들이 한국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학생이 변하고 있으니, 당연히 학생을 대면하는 교사가 변해야 하며 새로운 교육관과 교수법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학교와 협의회에서 차세대 교사 육성과 1세대 교사와 차세대 교사간의 소통과 공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교사들의 연수회에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정할 때 가능하다. “위에서 정했으니 따르라”가 아니라,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위에 분들은 물러나라”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한다. 1세대 교사들은 변화의 흐름을 수궁하고 변화의 강도를 서로 합의하여 조율하여 향후 재미 한국 학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교사들에게 힘을 주어야 할 것이며 차세대 교사들은 1세대 교사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올바른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5 교사 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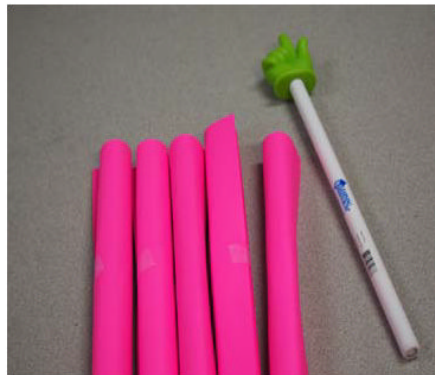
1 교사 강 정 아

수업 형태	탐구식
수업 이름	펠트를 이용해 글자 만들기
프로그램 소요 시간	40분
준비물	펠트지 (기초 자음, 기초 모음)
수업 진행 방법	1. 펠트지를 가위를 이용해 기초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과 기초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를 만든다. 수업전에 미리 선생님이 준비를 해도 좋다. 2. 기초 자음은 다른 색을 이용해 구분을 해준다. (예: ㄱ- 빨강색, ㄴ- 노랑색, ㄷ-파랑색,등) 기초모음은 하나의 색으로 통일을 한다 (저희 반은 검정색으로 통일을 함) 3. 기초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음절을 합해 단어를 만들어 본다. (예: ㄱ+ㅏ=가, ㄴ+ㅑ=나, ㅂ+ㅣ=비 등) 이제껏 배운 단어들을 각 기초 자음과 모음을 이용 스스로 만들어 본다. (예: 모기, 바다, 이사 등 간단한 단어들을 만들어 본다.) 4. 선생님이 제시해준 단어를 스스로 만들어 본다. 두, 세명의 팀을 이루어 서로 만들어서 먼저 만든 팀이 이기는 게임을 해 본다.
수업 효과	스스로 단어를 만들어 봄으로 글자의 조합을 익힐 수 가 있다.
사진	

2 교사 송 아 리

수업 형태	시험
수업 이름	Jeopardy game
프로그램 소요 시간	1시간-1시간 30분
준비물	종이, 마커, 시험 문제, 사탕,
수업 진행 방법	1. 학생들에게 숙제로 시험 범위의 예상문제를 내준다. 미리 숙제를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한다. 2. Jeopardy Game 판을 칠판에 그린다. 3. 학생들의 순서를 정해서 한 명씩 문제를 맞춘다. 틀렸을 경우에 두 번째 기회를 준다. 이때 다른 학생들이 도와줄 수 있다. 도움을 받는 시간은 30초이다. 도움을 받아서 맞췄을 경우 점수는 반만 받는다. 2점짜리일 경우 1점획득

4.



5. 교사와의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Letter	Character	Sound	Meaning	Point
문	한	글	뜻	점
2	②	①	①	②
4	④	②	②	④
6		③	③	
8	④	④	④	
10	⑤	⑤	⑤	



6. 정답을 맞춘 점수만큼 통에 사탕을 넣어서 나누어 갖는다.

마지막엔 스피드 퀴즈를 한다. 영어로 설명을 하면 한국어로 맞추는 것이다. 단어가 많을 때 매우 유용하다.

	** 규칙 ** 1. 학생들은 게임을 하는 동안 예상문제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순서에는 절대 볼 수 없다. 2. 학생들이 함께 도와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3. 학생들의 수가 10명을 넘지 않을 때 효과적이다. 넘을 경우 반을 나누어서 팀으로 하는 것도 좋다.
수업 효과	학생들은 시험에 매우 부정적이다. 시험 보는 것을 두려워해서 시험 보는 날 결석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게임 형태로 평가를 하면 학생들도 즐겁게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3 교장 김 인 숙

수업 형태	비한국계 고등학생 대상으로 수업은 영어로 진행 ** Thematic Unit 과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적용
수업 이름	<우리우리 설날은> 목적: 한국의 전통명절인 설날을 소개하고, 미국의 New Year's Day와 비교하고 연구한다.
프로그램 소요 시간	매일 45분씩 5일 수업 월-설날소개 및 단어공부, 동화책 읽어주고 대화나누기 화- 세배하는법을 배우고 서로 절하며 덕담을 한다. (한복종이접기) 수-전통놀이에 대해 공부하고, 4 팀으로 나누어 윷놀이를 한다. 목- 한국설음식 떡국을 만들어 먹고, 미국 New Year's Day 음식과 비교 금- 한국의 설날에 대해 KWL 계단책으로 리포트를 만든다.
준비물 : 동화책 	설날 소개 PPT들- 전통풍습, 전통놀이, 명절음식, 명절인사, 한복, 세배 새 단어카드- 설날, 한복, 차례, 세배, 떡국, Expression: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화책: <우리우리 설날은> 한국의 전통놀이 소개: 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Worksheet: 설날 단어모음 세배하는 법, 한복의 명칭, 한복색종이접기 윷놀이 게임규정과 단어모음, 떡국 만들기순서 민요배우기: 아리랑, 까치까치 설날은
수업 진행 방법	*월-설날소개 및 단어공부, 동화책 읽어주고 대화나누기 1. 수업전에 학생책상에 <설날 단어모음> worksheet 를 준비한다. 2.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 앉으면 출석을 점검한다. 3. https://www.youtube.com/watch?v=Fr6jIH1IOck <이해인수녀의 무지개 새해인사> 조용히 방정한 후 질문을 한다. 4. 준비한 설날 소개 PPT 를 보여주면서 한국의 명절 설날에 대해 공부한다. 이때 학생들이 각자 <설날 단어모음> worksheet 의 빈칸을 채우면서 공부한다. 5. <우리우리 설날은> 동화책을 읽어준다. 6. 책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고받아 이해를 돕는다. 7. 교사의 한국에서 설날경험을 나눈다. 8. 미국의 New Year's Day 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냈는지 한사람씩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9. 두나라의 설날의 유사점과 다른점등을 비교정리해 본다. *화- 세배하는법을 배우고 서로 절하며 덕담을 한다. (한복종이접기) 민요배우기: 아리랑, 까치까치 설날은 한복소개와 세배하는 방법을 여학생, 남학생 각각 배우고 연습하여 서로

	서로 절하고 덕담을 한다. 1) 종이접기: 한복 바지저고리 접기 2) 팀별로 한국설날의 하루를 가상스토리를 제작 발표한다. *수-명절에 하는 전통놀이에 대해 공부하고, 윷놀이를 체험한다. 한국의 전통놀이 소개: 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윷놀이 Rule을 배우고 팀을 나누어 윷놀이 게임을 하고 시상한다. *목- 한국설음식 떡국을 만들어 먹고, 미국New Year's Day음식과 비교 한국의 명절 음식에 대해 배우고, 떡국의 유래와 설날음식에 대해 리뷰하고 떡국을 함께 만들어 먹고, 맛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금- 한국의 설날에 대해 KWLbooklet으로 리포트를 만든다. 그동안 배운 한국의 설날과 미국의New Year's Day를 KWL booklet 발표 ** 롤플레이로 발표할 수도 있다.
수업 효과	Youtube, ppt, 문화체험등으로 쉽고 흥미롭게 한국의 정서를 배우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되고 미국의 풍습과 비교하여 공부하므로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된다.
사진 그림카드: 설날, 한복, 차례, 세배, 떡국,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윷놀이  한복  차례  세배  떡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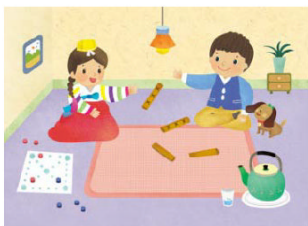


설날



English	한글	sound	Picture
	설날		
	한복		
	차례		
	세배		
	떡국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윷놀이



Englis h	한글	copy	copy	copy	Picture
	도				
	개				
	걸				
	윷				
	모				
	뱃 도				
	모판				
	말				
	말길				

4 교사 이해 진

수업 형태	작업
수업 이름	나의 얼굴
프로그램 소요 시간	1시간
준비물	날말와 그림이 있는 카드: 눈, 코, 입, 볼, 턱, 눈썹, 귀, 머리
수업 진행 방법	1. 내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귀를 자세히 관찰한다. 2. 동작 와 울동으로 내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귀, 볼, 턱, 눈썹을 가르친다. 3. 선긋기 연습으로 나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에 '나의 코' 등등 그리는 연습을 한다. 4. 눈, 코, 입, 귀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을 한다. 5. 발표하는 연습: 예) '코' 는 어떤일을 할까요? 맛을 보나요? 6. '코,코,코' 게임 선생님: '코,코,코... 눈' (얼굴에 부분을 가르킨다)
수업 효과	어린 아이들에게 나의 얼굴을 쉽고 빠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동작을 이용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은 효과가 좋습니다.
사진	

5 교사 신 성 희

수업 사례와
놀이 수업 방식타코마 한국학교
신성희 (Esther Shin)

개인 철학과 미션

-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 이해 – 개성 존중
- 각각 나이에 맞는 developmental stage 이해
- 다양한 교수/학습 방식: 전체 교실수업, 짝활동, small group activity, 놀이 수업, 마무리 평가 (쓰기, 읽기, 질문하고 대답하기, 단어/문장 해석하기), 숙제(매주: 일기쓰기, 문장쓰고 번역하기) 플더와 compliment 발급 + 온라인(사이버)학습

선생님의 역할과 교육적 효과

- 길잡이/다리 역할: 학생 자신이 선생이 되어 도와주는 scaffolding method (학생간의 나이차이와 이해력 차이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 다양하고 재밌고 활동적인 교육방식 연구, 도입: 학생의 눈높이와 문화적 차이 이해하고 파악하여 적용
- High Technology/MultiMedia 최대 활용: internet searching-program/image/video/audio ex) 스테디코리안(study.korean.net)

수업 사례

- 끝말잇기 놀이
 - 2그룹으로 나눈다
 - 선생님: set up a stop watch & 시작 단어 제시 후 15-20분간 놀이 진행
 - 순서를 정해 릴레이 형식으로 한사람씩 나와 칠판에 단어 (2자 혹은 3자)를 쓰고 들어간다.
 - 팀장 주도하에 철자를 고치고 뜻을 정확히 이해한뒤 다음 말잇기로 이어진다.
 - time out후에는 다같이 읽고 뜻을 해석하고 더 많은 갯수의 단어를 쓰고 이해한 팀이 승리한다.
 - 이긴 팀에겐 상품과 점수가 수여된다.
 - ♣ 팀웍, 쓰기, 읽기, 철자 고치기, 뜻 이해하기...

수업 사례

- 얼음/땡 놀이
 -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한 놀이
 - 선생님: 학생들의 동작과 움직임을 살핀다.
 - 한창 놀고 있을때, 선생님이 “Freeze(얼음)”을 외치면 모든 동작을 멈춘다. 이때 지목된 한 학생이 나와 칠판에 다른 학생이 읽어주는 문장을 쓴다. 철자까지 정확하게 쓰면 release가 되고 다음 얼음때까지 각자 하던 놀이로 돌아간다.
 - ♣ 놀면서 읽기, 쓰기, 철자 고치기 등의 학습이 병행되는 효과 (자발적 지원자 위주로 진행 가능)

교육적 효과

- 인간은 자신이 읽은 것(text)의 10% 본 것(image/video)의 20% 보고 들은 것(video, audio)의 30% 보고 듣고 행동한 것(video, audio, do)의 70%를 기억한다. (Rulmann, 1990)
- 감지력:
 - 시각 87%
 - 청각 7%
 - 후각 3.5%
 - 촉각 1.5%
 - 미각 1%

I. 영역 A

- 1) 성별: 여자 (Female)
- 2) 연령대: 사십대 (40' s)
- 3) 미국에 온 연령: 십대 (10' s)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4년차
- 5) 현재 가르치는 학생의 학년: 초등학교 2-5학년
- 6) 학생들의 세대: 대부분 이민2세 혹은 3세
- 7)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계기: 한국학교와 처음 인연을 맺게된 계기는 신문광고에서 보게된 여름학기집중수업 포스터를 통해서였고, 한달간의 한글교육 과정동안 눈에 띄게 향상된 두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에 놀라 그 후로도 계속 토요일에 한국학교를 보내게 되었다. 두번째 학기쯤 선생님을 구한다는 말에 지원하게 되었고, 한글교육을 통해 미국에 살고있는 2세 3세 아이들에게 언어는 물론 문화와 역사교육까지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명감과 동시에 관심과 호기심이 발동했었다. 현재는 관심 그 이상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아이는 물론 학부모님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한국교육을 제공하려고 애쓰고있다.

II. 영역 B: 학생들과의 관계-문제와 해결방안

한국학교의 특성상 나이나 학년별로 학급이 편성되기보다는 각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등급체계를 기본으로 반편성이 이뤄지게 되다보니 가끔씩은 학생들의 나이차에따른 이해력과 사회성의 차이를 한 학급내에서도 두드러지게 느낄때가 많고, 그에 따른 보이지 않는 갈등도 간과할 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팀장회의 및 교사회의를 거쳐 분류 배정하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학부모님들과의 대화와 이해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혹시 있을지 모를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더욱 더 신중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필터작업을 통해 편성된 반은 일년의 한글교육 과정에 돌입하게 되는데, 우선 염두에 두어야할 일은 학생들 각자의 성격과 개성, 그리고 학습태도와 이해력정도 등등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빠른 시간안에 파악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선생님의 한가지 교수 방식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받아들여질것이라는 게으른 기대와 착각이 자칫 한국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허무하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현실적 긴장감을 갖고, 늘 연구하고 리써치 하여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해야 학생들의 흥미를 오래 끌고갈 수 있으며, 학생들간의 보이지 않는 겉과 사회성의 차이를 좁혀갈 수 있게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른 개성과 이해력을 가진 아이들의 공통분모를 발견해 나가게 되는것이며 그 공통점이 관심으로 모아져 꼭지점이 형성될때, 학생들간의 문제와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가는것이라 생각되며, 그 생각은 4년동안의 한국학교와 교회 주일학교 교사라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더욱 확신성을 갖게되었다.

학생과 선생님과 관계, 선생님과 학부모와의 관계, 심지어는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과 갈등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인 것이기에 사람사는 곳이라면 어디건 문제는 있다는 가정하에 그 문제의 시작과 단계를 차분히 살펴 각 학생과 부모에 맞는 해결책을 풀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단지, 문제에 당면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사람을 우선 살피고 상황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내기에 있어 주위 선생님들의 조언과 학부모님들의 생각을 듣고 반영해야 한층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기에 늘 더불어 대화하고 평소에 원활하고 편한 관계를 만들어 놓아야 함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혼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아니, 있다해도 그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기에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

학부모님께 솔직히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 하며 잦은 대화 (요즘은 이메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발달로 문자와 카카오톡 같은 앱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대화와 의사전달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살려본다면 더 큰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를 통해 친분을 쌓아두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빠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정리하자면, 문제에 당면했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대결하여 문제를 직시하고 재빨리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되, 학부모와 경험자 선생님들의 조언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교육은 선생과 학생, 그리고 부모님이 삼위일체가 되어 세개의 꼭지점을 형성할 수 있을 때 현명하고 균형있는 삼각형의 해결점을 찾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이상적인 선생의 역할중 한부분이라고 분명 생각하는 것이다.

III.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는? 맡은 일에 만족? 이유?

4년째 초급반 (1-4반 중 3-4반 담임)을 맡고 있으며, 재작년까지는 회계임무와 고학년 대상 인성교육 팀장을 함께 맡아 하다가, 작년부터는 초급반 팀장과 ‘나의꿈말하기대회’ 준비반을 맡아 초급반 담임과 겸하여 일하고 있다. 현재 협의회 일은 많지 않았지만, 각종 행사에는 적극 참여 준비를 돕고 있으며 한때는 한국어능력평가시험의 출제위원과 감독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맡은 일에는 만족하며 늘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쫓기는 시간과 스케줄로 인해 버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솔직히 말해, 한국학교 일이라는 게 반이상은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보상을 바라거나 댓가를 바라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게 사실이다. 내 개인적 삶을 어느정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때도 있고 가족의 협조와 이해를 구해야 할 때도 잦기 때문에 맡은 일에 만족하면서 행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버겁고 부담스럽기도 하다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

2) 학교 시설은 어떤지 & 개선점:

현재 재직중인 타코마한국학교는 타코마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래된 교육체계를 갖고 있는 학교로 교회안에 소속된 건물의 방들을 교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 교회로부터 다소의 재정적 도움과 관심을 받고 있다. 나를 비롯한 선생님들의 반 이상은 타교회를 섬기지만 그에 따른 차별은 없으며, 모두들 기독정신을 바탕으로 한 섬기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한다. 수업은 9시30분에 인성교육시간으로 시작되며 50분 단위로 수업이 진행되고 중간에 30분간의 점심시간 후 3교시가 진행되면서 3시간의 한국학교 수업은 마무리된다. 정규수업 후엔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1시간 동안 다양한 특별활동 시간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초급 이상의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가져와 인터넷프로그램을 활용한 활동을 하거나 혹은 프로젝터를 이용해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다같이 보며 수업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시설은 양호한 편이긴 하나, 학교물품으로 구입한 노트북이 하나여서 여러 선생님들이 필요에 따라 돌아가며 사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프로젝터가 다소 비싸고 갯수가 2개라는 제한된 환경으로 인해 수업방식을 자주 바꿔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조만간 선생님들의 필요와 건의에 따라 몇몇반에 중간 사이즈의 티미 모니터를 설치한다고 하니 또 다른 교수방법을 기대하고 도입해볼 만할듯 하다. 개선할 점이라고 한다면 매 학기마다 필요한 물품들이 늘 있기 마련인데, 가끔씩은 사비로 충당해야하는 경우가 있기에 열정을 갖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은 개인적 부담이 되기도 한다. 나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지만, 거기에다 3주에 한번씩 주점을 통해 상과 상품을 주는 작은 반행사가 있어 그에 따를 경제적 부담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되지만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유발 내지 수업참가 정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이런 희생은 결국 내 재량껏 감수해야하게 된다. 어느 단체건 경제적/제정적 부담과 바램은 있기 마련이니 가르치는 이가 어디에 더 focus하느냐에 따라 선생 개인의 부담도 때론 뿌듯함과 감사가 되는 것이기에 힘들고 버거워도 또 견디며 임무에 충실하는가 보다.

3) 본인의 교수방법의 특별한 점:

매 수업때마다 개인 노트북을 가져가서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활용해 다같이 보며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이 직접 앞으로 나와 칠판에 답하고 써보게 하여 활동량과 참여도를 가능한 높이고 있다. 연령대가 초등학생들이다 보니 오래 앉아서 수업한다는 것이 힘들 수 있고 짹활동이나 그외 활동적인 부분이 없다면 금새 흥미를 잃게된다. 파워포인트 활용 외, 인터넷 프로그램 (study Korean, etc.)도 함께 병행하여 말하기, 듣기, 쓰기 (매주 미리 나누어준 교재를 바탕으로 받아쓰기 시험을 본다), 읽기, 한국드라마의 짧은 부분을 보고 이해하고 토론하기, 다양한 게임을 통해 단어와 문장 익히기 등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해 진행하다보니 3시간의 수업이 재밌고 알차며 학생들의 출석비율도 매주 거의 100%에 가깝다.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차세대 교사들이어서 생기는 문제나 이슈는 따로 있지않다는 생각을 하며, 오히려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한국어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미국사회나 문화를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어서 나뉘이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굿이 문제라 하면, 차세대 교사들은 아무래도 주중엔 본인의 메인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바쁜 주중에 짹짹 수업준비에 신경 써야하고 학기마다 치러지는 각종 행사 준비와 진행을 병행해야 하며 행사 준비기간 동안엔 학부모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뒤야하니 주말없이 또 쉬는 날 없이 매일을 바빠 살아야한다는 여유없음과 시간에 쫓기듯 살아야함이 선생님들을 금새 지치고 사기저하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한국학교 선생님의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람과 책임감만 갖고서는 오래 지속하기 쉽지않은 자리인 듯 싶다.

5)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

문제가 제기되고 수면위에 떠오르게 되면 무조건 교사회의를 통해 위로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 함께 의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로 진행해 나가면서 개선해 가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때론 개인적으로 나눠야 할 문제들도 있으니, 각 상황은 선생님들이 판단해야 할 것이고, 교장/교감 선생님과 의 일차 상의 과정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이 파악이 된뒤에는 교사회의나이사회를 거쳐 또다를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타결해 나가야 할것이라 생각한다. 문제를 덮고 개인의 불만으로 남겨 넘어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어떠한 개선도 해결도 이뤄질 수 없을것이고 결국 그 불만과 문제로 인해 상처받고 떠나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 평소에 1세와 1.5세 혹은 2세 선생님들간에도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들간에 우선 자연스러운 관계와 만남, 대화가 이루어져야 문제가 발생했을때 원활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본 학교가 행하고 있는 일상의 만남의 예를 든다면, 매일 매일 그룹카톡을 통해 좋은 말들을 나누고, 힘든 일들을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며 방법도 제시해 주고, 공지사항이나 알림을 공유하고 있고, 매주 수업 시작전엔 교사회의가 열리는데 회의전에는 15-20분 동안 Q.T. 와 찬양 시간을 가져 서로의 신앙과 생각을 나눔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분위기 가운데 하루의 수업을 시작하게 된다.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

솔직히 제한하고 싶은게 있다면,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서 좀 더 여유있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오고가는 교환 프로그램(학생들 상대)이나 선생님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참석할 수 있는 교육 세미나와 체계적인 certificate course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 몇년 전 서울 대학교 평생 교육원에서 지원하는 교사양성 코스를 이수했을 때에도 반 이상의 상당한 액수를 개인적으로 부담했어야 했고 그 코스에 이어지는 다음 단계는 한국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한다는 경제적 부담때문에 계속할 수 없었던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아깝고 아쉽긴 했지만, 현실적 벽에 부딪혀 중도 포기했어야 했고 certificate 받은 경험 정도로 만족했어야 했다. 물론 그 때의 경험과 교육은 현재 교수방식에 도입돼 활용되고 있긴 하다.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

나의 개인적인 좌우명이 있다면, 한 아이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단순히 한글이란 언어적 교육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같은 나이 또래의 관심거리, 심지어는 한국 음식과 놀이까지도 다양하고 재밌고 활동적인 방식을 통해 경험하고 배우게 도와준다는 것이다. 선생이기에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배우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와 문화적 차이의 수준에서 길잡이 역할과 다리 역할을 해주기 위해 나만의 교수 방식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찾아내고 도입하여 이해와 발전을 도모한다는 나만의 미션을 갖고 있다.

IV. 학생들의 반응이 좋고 수업 효과가 높았던 수업 한 가지:

● 끝말 잇기 게임:

학생 수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첫 단어는 선생님이 제시하면서 제한 (15-20분동안 stop watch를 set up 해둔다)된 시간 동안 2글자 내지 3글자의 단어들을 순서대로 말하고 앞에 나와 칠판에 쓰고 들어가는 릴레이 형식의 게임으로 진행한다. 단, 단어의 뜻을 확실히 알아 설명할 수 있을때에 점수가 주어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round 1 through round 3 을 각 15분 동안 (이 게임은 한시간 수업까지 이끌 수 있다) 진행하면서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를 생각해 내고 직접 칠판에 써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팀원간에 서로 상의하고 생각하고 철자를 고쳐주는 협동심도 자연스레 익히게 되며, time out 후에는 칠판에 나열된 단어들을 다같이 큰 소리로 읽고 뜻을 말하고 점수를 산출해 승자를 가르게 된다. 이때 승부욕이 있는 학생은 다음 게임을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더 집중된 모습과 표정으로 게임에 임하게 된다. 물론 이긴 팀에게는 선생이 준비한 상품 (학용품이나 스낵류)이 주어져야 더 활발한 동기유발이 된다.

● 얼음/땡 게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교실 내에서 놀고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아이들이 한창 놀고 있을때 동작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가 선생님이 “Freeze(얼음)” 을 외치면 순간 모든 놀이를 멈추고 재밋도 웃긴 포즈로 얼음이 된다. 그 동안 선생님이 한 아이를 지목해 불러서 간단한 문장을 읽으면 그 아이는 그 문장을 칠판에 제대로 쓸 수 있고 100% 정답이 확인되어야 얼음이 풀려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시작은 선생님이 하지만, 지원하는 학생이 꽤 있어 다음 문장을 읽고 정답을 확인하고 얼음을 해제하는 역할도 학생이 맡게 된다. 선생님은 그냥 옆에서 길만 인도하고 재밋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게임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주도하여 진행하게 된다. 잠깐의 짬을 활용해 행해지는 놀이이지만, 놀면서 읽기, 쓰기, 틀린 글 고치기 등등의 학습이 병행되는 것이기에 나름 효과적이라 생각되며 이제는 아이들이 더 원하는 게임이 되었다.

2 교사 이 슬 기

모데스토 한국학교

1. 영역 A

- 1) 성별 - 여성 (female)
- 2) 연령대 (10s, 20s, 30s...) - 20s
- 3) 미국에 온 연령 - 0 year. 미국에서 출생.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 3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 성인 외국인반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 대학에서 1년간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어서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음 (엄마가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셔서).

2. 영역 B

학생들과의 관계: 학생들이 모두 성인으로, 입양된 한국인, 한국 아이를 입양한 외국인, 또는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국어 뿐만 아니라 각자의 취미와 관심사에 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며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가끔씩 수업 시간외에도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한다.

3.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rank)는, 맡은 일에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이유는?

학교에서는 성인 외국인반 교사로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 시설은 어떤지와 어떻게 개선했으면 하는지? 학교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교회에 교육관이 따로 없어서 독립된 교실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는 간이 칸막이를 사용하여 교실을 구분하여 쓰고 있다.

2)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특별한 교수 방법은 따로 없고, 동영상 많이 활용하고, flash card를 사용하여 단어 습득에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하고 있다.

3)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무래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해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제대로 지식 전달을 하기가 어렵다.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 앞서 이야기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지식 부족을 관련된 동영상을 찾아 보여주는 것으로 나름대로 임시 해결하고 있다.

4)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영어와 한국어가 병행된 자료나 동영상이 많았으면 한다. 특히 한국 역사를 쉽게, 재미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5)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한국어를 배움으로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3 교사 강 정 아

실리콘밸리 한국학교

1. 영역 A

- 1) 성별 - 여성 (female)
- 2) 연령대 (10s, 20s, 30s...) - 30s
- 3) 미국에 온 연령 - 15세.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 4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 초등 1학년부터 3학년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 미국에 있는 2세 3세 아이들에게 영어로 한국과 한국어를 알려주고 싶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2.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rank)는, 맡은 일에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이유는?

한영1-2반 선생님, 한영부 부장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일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영반은 한글을 영어로 가르치는 반으로 아이들이 한국어 보다 영어가 더 편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한글뿐 아니라 한국문화도 같이 알려주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학교 시설은 어떤지와 어떻게 개선했으면 하는지?

학교시설은 현재 있는 미국 고등학교를 빌려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 우리 한글 학교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용하는데 있어 많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 바램은 훗날 우리 한글 학교 자체 건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욱 많은 차세대 선생님들이 계셔서 더 많은 영어권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저희 한영반 특정상 주로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저희반은 특별히 한글의 기초 자음 모음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각적 효과를 이용한 수업에 집중하여 자음 모음 카드나 단어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외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수업중에 게임이나 놀이를 이용한 수업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차세대 교사는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편하지만 그래도 영어가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뀐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해와 바른 한국어 구사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5)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한반에 최소 2년에서 3년동안 한 학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 마다 새로운 방향으로 아이들을 지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기본 수업내용과 방향은 같지만 매번 새로운 게임이나 미션등을 추가하여 수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저희 한영반처럼 영어권인 학생들이 배울 만한 좋은 교재가 많이 없습니다. 맞춤한국어도 좋은 교재이긴 하지만 기초를 더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교재나 학습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교사들은 다른 선생님들 보다 한국어가 많이 서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한 이런 세미나나 연수회가 많이 있어 올바르게 가르치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고 좋아하게 하자

4

교장 송 지 은

스탁톤반석 한국학교

1. 영역 A

- 1) 성별 - 여성 (female)
- 2) 연령대 (10s, 20s, 30s...) - 60s
- 3) 미국에 온 연령 - 10살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 30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 중등반, 역사문화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 자신과 같은 환경의 학생들

2. 영역 B

학부모와의 관계: 정규학교에서 갖는 언어, 문화적 장애를 상담으로 도움을 주면서 교장으로서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3.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rank)는, 맡은 일에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이유는?
만족합니다. 협의회 일을 돕고 학생과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 학교 시설은 어떤지와 어떻게 개선했으면 하는지?

교회부속으로 만족합니다

3)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세대 또 2세대와 사이에 여기도 저기도 속해 있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4)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은?

상담으로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차세대의 정확한 정체성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듣는 귀와 마음의 인내입니다.

5

교장 이승민

새언약 한국학교

1. 영역 A

- 1) 성별 - 남성 (male)
- 2) 연령대 (10s, 20s, 30s...) - 30s
- 3) 미국에 온 연령 - 16살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 21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 가르치지 않음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 자녀의 한국어와 뿌리교육을 위해

2. 영역 B

학부모와의 관계: 교장으로서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자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 및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부모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눔. 요청시, 특별반 진급을 위한 추천서 작성하여 제공하여 대학 입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함께 아이에게 뚜렷한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와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안내함.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어도, 새로 바뀐 입학 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학부모 강좌와 가정 통신문을 통해 소통하며 의견을 나눔.

3.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rank)는, 맡은 일에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이유는?

교장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하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존경스럽다. 학교 교육에 대한 큰 틀을 함께 만들지만, 각 반을 책임지는 것은 선생님들이며 맡은 책임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다.

2) 학교 시설은 어떤지와 어떻게 개선했으면 하는지?

학교 시설은 작은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반을 최대 6개까지만 나눌 수 있어 최대 수용 학생이 75명이다. 배움의 장이 좀 더 조용하였으면 좋겠다.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가끔 가르칠 때, 아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우선 아이의 장 단 점을 파악하여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모두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교장으로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교유 그리고 선생님과 사이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아이의 관점에서 들어준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됨을 보게 된다.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소통과 공감. 아이들과의 문제는 개별 교수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학교 시스템에 대한 적응과 동료 교사와의 마찰이 생길 때 해결하는 방법에 있다. 이는 1세대 교사들은 원만히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내지만, 차세대 교사들은 문화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간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학교의 시스템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차세대 교사들도 기존 시스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5)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은?

정해진 수업과 사업만 진행해야 하는데, 갑자기 추가된 학사 일정이나 행사가 생길 때,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 협조 하지 않는다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감을 감지하게 되며, 기분 이 썩 좋지 않는음. 이는, 사전 소통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에 처음에는 참고 참여하였지만, 나중에는 추가 행사나 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어 나감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차세대 교사들을 위한 한국 체현의 기회가 더 많아 졌으면 한다.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아이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자!!

6

교감 원은 경

다솜한국학교

1. 영역 A (단답형 질문)

- 1) 성별 - 여성 (female)
- 2) 연령대 (10s, 20s, 30s...) - 40s
- 3) 미국에 온 연령 - 15살/ 9학년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 만 10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 3-8학년, 한영반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 처음에는 학부모로 인연을 맺었다가 미국 현지의 2세대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뿌리를 심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학교에서 1.5세 선생님의 다리역할이 필요하다는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의 권유로 용기를 얻어 교사로 섬기게 됐다.

2. 영역 B

학생들과의 관계: 나는 학생들에게 루틴한 것을 매우 강조하는 편이다. 우리 반에 오는 학생들은 주로 영어를 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들로 학년이 높아질 때까지 한국말을 배우지 못한 학생들, 다문화 가정 등에서 오는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낮기 때문에 자주 attention을 잃어버리고 장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주 반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강조하며 바른 생각과 습관의 중요성을 깨달아 학생들이 스스로 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도록 동기부여에 힘쓰는 편이다. 그리고 계속적이며 다양한 활동으로 반복 학습을 많이 시키는 편이다. 학기 초에는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었던 반이 1학기가 지날 때 쯤에는 안정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갑자기 한국말을 잘 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부모의 협력이 학습에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해준 학생이 있다. 8학년과 6학년의 중국계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의 자매이다. 이 학생들은 프리스쿨 때부터 우리학교에 다녔다. 처음에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번 주에 배운 것은 다음 주에는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한국학교에 오는 것을 즐거워했고 부모의 열성이 함께 하여 현재는 모든 과정을 다 잘따라가고 있다.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 10학년 쯤 되어서 SATII Korean에 750점 이상 받았으면 하는 것이다.

3.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rank)는, 맡은 일에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이유는?

학교에서 교감을 맡고 있다. 내가 과연 교감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와 교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끔은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있다. 교감이 직위가 아니라 다른 교사보다 좀 더 앞장서서 일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을 도우며 학교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학교 시설은 어떤지와 어떻게 개선했으면 하는지?

학교는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셋업과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교실과 같은 느낌이 안들 때도 있다. 교실이 좀 더 컸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기타 사항은 학교에서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원하는 IT 기기는 거의 다 있다고 할 수 있다.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나는 반복 학습을 자주하고 약속을 꼭 지키는 편이다. 책임감과 성실함을 강조하며 숙제와 학교규칙과 수업태도에 대한 상을 주는 교수법을 사용하는데 효과가 있다. 부족하지만 학생들의 좋은 멘토가 될 수 있기

를 소원하며 관계중심적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지금은 학생으로써 학업에 충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좋은 생각과 습관을 심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영어 둘다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어떤 공적인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춤할 때가 많다. 처음에 한국학교 교사로 제의를 받았을 때도 그랬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 및 선배 선생님들의 격려와 도움 그리고 교사 연수회등을 통하여 배우고 연구하면서 가르친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사명감이 생겼고 어느덧 10년차 교사가 되었다.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지금은 교감으로도 섬기고 있으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 노력하는 교사가 되고자 소망한다.

5)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

우리 학교는 역사문화 교육을 매우 강조하는 학교이다. 한국역사문화 교육이 뿌리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믿지만 사실 나는 한국역사문화에 대해 문외한이다. 교장 선생님이 역사문화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헤쳐나가면서 나도 배우는 입장이 되어 감사하고 있다. 지금은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학교의 정체성에 관해서 물으면 나는 바로 “역사문화 강화 학교” 라고 대답할 수 있다.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나도 교사로 섬기게 되면서 많이 배우며 많은 보람도 맛보게 됐다.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보조교사로 섬기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돕는 것을 즐거워하며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학교 학생들을 학생에서 보조교사로 나아가 차세대 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도전해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1세보다는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2세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만큼 학생들을 이해하며 좋은 생각과 습관을 길러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계발하여 어디서든 잘 협력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섬김의 리더들로 자라나도록 돕는 선생님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한다.

7

교장 석수진

뉴라이프 한국학교

1. 영역 A (단답형 질문)

- 1) 성별 - 여성 (female)
- 2) 연령대 (10s, 20s, 30s...) - 40s
- 3) 미국에 온 연령 - 20대 중후반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 9-10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 SAT반과 한글을 늦게 시작하는 고학년반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2. 영역 B

1) 학생들과의 관계: 아이들이 영어를 잘 할 줄 아는 선생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2) 다른 교사와의 관계 (1세 혹은 2세 및 차세대 교사): (교장으로 볼 때) 미주사회 한국학교의 특성상 선생님들과 학교측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의 열심을 이끌어 내어 수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1.5세대나 2세대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받아온 교육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에 한계가 있고 원어민 선생님들과 사고의 차이가 느껴진다. 특히 우리학교에 계셨던 두 분은 1.5세대로 엘리 선생님이셨는데, 그들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학교에서처럼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의 열의를 이끌어 내어주는 역할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동기를 부여해 줘야 하는 것이 어려웠다.

3.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rank)는, 맡은 일에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이유는?

일에 만족하지만 시간 효율을 생각한다면 합당한 급여가 지급되었으면 좋겠다.

2) 학교 시설은 어떤지와 어떻게 개선했으면 하는지?

학교는 교회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여러분들과 특히 엘리 아이들이 같은 방을 다른 시간대로 여러 용도로 활용함으로 책상정리나 쓰레기 처리등이 안 되어 있고 어수선했다가 많다. 딱히 다른 방법을 제시하기 보단 선생님들의 부지런함으로 각자의 교실을 정리하도록 격려할 때가 많다. 선생님들이 수업과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면 한다.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고학년으로 처음 한국어를 배우로 오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겐 한국어가 제 2 외국어가 되며, 이중언어가 될 수 없음을 확실히 얘기한다.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인이 한국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제 2 외국어로 가르치는 것 같다. 어린 학생들은 아무리 영어권이라도 한국어로만 수업하고 이중문화권으로 나아 갈 수 있는데 이것을 간과하는 것 같다. 본인들이 완벽한 한국문화권에서 자라지 않은 이유인 것 같기도 하다.

5)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

위에서 말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세대 교사의 정확한 반배정이 중요한 것 같다. 본인의 장점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성인반이나 아주 고학년반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확한 문법의 체계가 사전에 필요하다.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많은 다양한 특화된 연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한국말 또는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고 미국사회에 영향력 있는 건강한 시민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8 교사 송 아 리

새하늘 한국학교

1. 영역 A (단답형 질문)

- 1) 성별 - 여성 (female)
- 2) 연령대 (10s, 20s, 30s...) - 30s
- 3) 미국에 온 연령 - 22세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 10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 6-7학년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 주변권유

2. 영역 B

1) 학생들과의 관계: 학생들과 즐겁게 수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가 쉽지가 않다. 농담도 많이 하고 영어로 설명을 해 주면서 학생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정확한 규칙을 주고 그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풀어주는 편이다.

3.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rank)는, 맡은 일에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이유는?

학교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맡은 일에 만족한다.

2) 학교 시설은 어떤지와 어떻게 개선했으면 하는지?

학교는 교회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교실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어로 된 동화책이나 도감 등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프로젝트와 발표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기존 학교에서 행하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 평가는 있지만 문제풀이식의 시험은 없다.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수능력과 한국어 실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본다. 한국을 떠나 온 지 오래 되어 최신 한국어 문법과 현재 자주 쓰이는 어휘 등에 약하다.

5)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

다양한 연수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직접 본 적 없는 전통놀이나 악기, 춤 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 교사가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교사연수와 자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한인 2세만을 위한 학교가 아닌 비한인도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9

교사 이 승 연

성로렌스 한국학교

1. 영역 A (단답형 질문)

- 1) 성별 - 여성 (female)
- 2) 연령대 (10s, 20s, 30s...) - 30s
- 3) 미국에 온 연령 - 15세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 10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 현재는 없습니다.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 교회안 봉사활동

2. 영역 B

1) 다른 교사와의 관계 (1세 혹은 2세 및 차세대 교사): 1세대 교사들과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있어 이곳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제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라는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1세대 교사들은 자신이 배웠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와 읽기와 쓰기에만 중점을 두기도 하였고 젊은 유학생 교사들 또한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국어에 중점을 두기도 하였다. 해결방안으로 재미동포 2세-3세 들인 이곳 학생들의 목표는 가족간의 소통이라는 목적을 정확히 이해시켰다.

3. 영역 C

1)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특별한 점이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이제 대학생이된 학생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가하는말이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재미있고 친구 같았어요” 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그 학생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내가 15-16살에 고민해오던 것들을 학생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걸 알수있었는데 한국학교에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 고민을 한국학교 수업중에 수업의 한 방법으로 학생들과 진솔하게 이야기 할수있었다.

고급반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었지만 재미있고 친구같은 선생님이 되려면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걱정도 해주고 해결방법도 제시해주어야 한다. 예를들면 7-8명 되는 학생들과 돌림 쪽지쓰기, 고민나누기, 등을 한적이 있는데 교사인 나부터 학생들에게 다가가면 학생들 또한 한걸음 더 다가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사춘기 었던 학생들과 진심으로 이야기 할수 있었고 또한 한국어 수업에도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

2)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1.5세로서의 가진 큰 문제는 한글을 잘 모른다는것이다. 읽고 쓰고 말하는데있어 부족함이 없지만 가끔 한자어나 맞춤법등을 모르때가 있다. 나의 한글 능력이 중학교때 멈춰있다는것을 느끼는데 고급반을 가르칠때는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것을 느꼈다.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글을 잘 모른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기에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더 배워야겠다고 생각한적이 있다.

3)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

1세대 학부모님과의 소통. 그리고 2세 부모님들과의 소통. 1세대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생각과 2세 학부모님들이 가지고있는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참여하는 부모님의 숫자는 적었지만 학부모 컨퍼런스를 만들어 1세 학부모님들이 가지고있는 생각과 2세 학부모님들의 생각을 서로 상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서로 이해하고 좋은점은 받아들이는 그런 방안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4)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친구같은 선생님. 재미있는 선생님. 기억에 남는 선생님.

1. 영역 A (단답형 질문)

- 1) 성별 - 여성 (female)
- 2) 연령대 (10s, 20s, 30s...) - 20s
- 3) 미국에 온 연령 - 미국에서 태어남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 3년이상 (보조 교사 3년 정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 초등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8~10세정도).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 어머니 도와주다가

2. 영역 B

1) 학생들과의 관계 : 1세대 교사들은 무조건 <해야된다>만 가르친다. 그 부분이 학생들은 이해를 못한다. 나는 학생들과 2세대로서 우리의 모국이 왜 있어야 하고 모국어를 왜 배우는 것이 좋은가를 대화하며 꼭 배우지 않아도 되지만 언젠가는 후회할 수 있을거라고 얘기해 주며, 한글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고 천천히 시간을 두며 배울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1세대 교사들과 부모들은 수업 진도가 늦다고 하고, 배우는게 없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더 확실히 학생들은 잘 배우고 있다.

3.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rank)는, 맡은 일에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이유는?

네, 내가 한글을 배울 때의 그 고통을 먼저 느낀 내가 들어주고 대화해 주니까.

2) 학교 시설은 어떤지와 어떻게 개선했으면 하는지?

우리 학교는 작지만, 개인 교습 하는 것 같이 수업한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 그렇다.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나는 보통 학생들과 만들거나 그리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서로 하며 한글을 말하고 나중에 쓰는 것을 알게 한다.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관심, 역사를 잘 모름

5)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학생들의 관심을 알자. 재미있게 마음을 맞추자.

11

교사 황 수 진

드로우한글학교

1. 영역 A (단답형 질문)

- 1) 성별 - 여성 (female)
- 2) 연령대 (10s, 20s, 30s...) - 40s
- 3) 미국에 온 연령 - 32살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 5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 고등학교 이상 성인 기초반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 한국에서 부터 중고생 대상 학원 강사와 과외를 했고 미국에 이민오기 전에 외국인 친구를 대상으로 한국어 과외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고려대학교에서 주최하는 한국어 강사 연수를 수료하고 휴스턴 한인 학교를 시작으로 휴스턴 한국교육원 강사, 현재의 드로우 한글학교에서 기초반을 가르치고 있다.

2. 영역 B

1)학생들과의 관계:드로우 한글학교 특성상 대부분이 학생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가르치고 있는 레벨 1반은 10학년 부터 4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과 더불어 한국 드라마나 노래에 관심 있어 한국어를 취미로 배우는 학생들, 현재 한국회사에 일하는 직장인들, 한국 유학이나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유로 또는 때때로 타의로 오는 어린 학생반과는 달리 수업에 대한 그 열의가 항상 대단하고 적극적이라는 특징과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라 부득이하게 출장이나 자녀들의 갑작스런 상황으로 결석이 있을 경우 굉장히 불안해 하는 요소가 있다.

나는 교사로서 이런점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에는 결석자들에서 수업 내용을 이메일 하거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대화하는 형태로 결석자들의 보충수업을 하였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재직하던 고등학교에서 이용한 EDMODO.COM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었다. 매주 수업 내용을 웹에 올리고 교사가 허락한 이용자들에게 한해 내용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여 부득이하게 수업에 참가 하지 못한 학생들이 다음 주 수업에 참가했을 때 뒤처짐이 없이 수업을 따라 갈수 있도록 하였다.

현 시대에 소셜 커뮤니티가 차지하는 영향을 두말 할 필요 없이 크다. 페이스북을 이용한 그룹을 만들어 한글 수업뿐만 아니라 공감대나 취미도 공유하고 있다. 사실 페이스북 그룹은 학생 중 한명이 직접 만들어서 다른 학생들과 스스로 정보를 나누면서 시작되었다.

고등교사로, 한국어교사로, 유치부교사로 일하면서 교사라는 호칭이 무안할 정도로 나는 많이 배우고 있다. 특히 한국어를 가르치면서는 순수함과 노련함을 함께 공유한 다양한 연령층이 주는 신선함이 나를 항상 배움의 강에 빠지게 한다. 미국에 와서 사귀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처음 한글학교에서 교사와 제자로 만난 사람들이 지금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되었는데 이런 면만 보아도 내가 한글교사직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3.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rank)는, 맡은 일에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이유는?

만족하고 있다. 드로우 한글학교 교장선생님과 동료 선생님들이 모두 학교 발전과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협조하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2) 학교 시설은 어떤지와 어떻게 개선했으면 하는지?

현 초중등부 드로우 아카데미 건물을 주말에 이용하고 있기때문에 교실에서 이용하는 테크놀로지 시설도 잘 되어있는 편이다.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학습의 연속성과 학습자 흥미유발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매주 수업시작시 동요를 배우면서 지난주 수업을 복습하고 새로운 단어를 배우며 즐겁게 시작한다.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료의 부재 (lack of resources) 라 생각한다. 인터넷이 있는 수많은 정보를 교사실정에 맞게, 학생수준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터무니없이 과하게 소요된다. 좀 더 다양한 커리큘럼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5)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

좀더 흥미있고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는데 수업의 일부분을 학생들에게 직접 의견을 받아 진행했다. 강남 스타일이 유행할때는 강남 스타일을 배우고 별에서 온 그대에서 나오는 대사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 하기도 하였다. 교사가 진행하는 일방적인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 나가는 수업을 하고 있다.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지속적인 교사 연수의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년에 한두번 있는 교사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정보를 공유하는 연수도 중요하지만 교사 개개인의 교실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체계적 교수 학습 방법 새로운 지식제공을 위한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학생들에게 한글만 가르치기 보다는 한국의 문화에 공유하고 흥미를 유발하여 내 학생들을 한국문화 한글의 전도사로 만드는 교사가 되는 것이다.

12 교감 한 애 경

The True Light 한국학교

1. 영역 A (단답형 질문)

- 1) 성별 - 여성 (female)
- 2) 연령대 (10s, 20s, 30s...) - 50s
- 3) 미국에 온 연령 - 15세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 7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 중등부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 학생과 부모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돕기 위하여

2. 영역 B

- 1) **학생들과의 관계:**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 부모님과의 문제점을 이해 하고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3. 영역 C

-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rank)는, 맡은 일에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이유는?**

작은 힘이나마 모든 선생S님들과 부모님들께서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가르치심에부응하여 교감으로서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 2) **학교 시설은 어떤지와 어떻게 개선했으면 하는지?**

교실이 더 필요 하지만 현재로선 재정 문제와 교회 당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모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학생들이 주도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5)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

학생들과 교사들 , 그리고 부모님들께는 통역인으로 또 대변인으로...

-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2세들이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끄럽지 않도록 내세울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진실해야 하며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그들의 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우리 2세들에게 한국인 어메리칸인임을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이며 한글이 그들의 미래에 삶에 왜 꼭 필요 한가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 교사 이해진

실리콘밸리 한국학교

1. 영역 A (단답형 질문)

- 1) 성별 - 여성 (female)
- 2) 연령대 (10s, 20s, 30s...) - 20s
- 3) 미국에 온 연령 - 미국에서 태어났음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 3.5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 한영유아반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 한국어를 차세대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기쁨을 한국학교에서 학생, 도우미로 일하면서 느꼈습니다.

2. 영역 B

1) 학생들과의 관계: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토요일아침마다 설렘, 스트레스,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학생들과는 저의 관계는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라 재미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주어진 시간에 같이 배우고 흥미롭게 한국어에 대해 배웁니다.

3.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rank)는, 맡은 일에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이유는?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규모도 크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 이사들이 함께 1000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2) 학교 시설은 어떤지와 어떻게 개선했으면 하는지?

저희 한국학교 시설은 아주 좋습니다. 50개 넘는 반과 여러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어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잘 되어있습니다.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학생들을 혼내는 것보다는 잘못을 했으면 왜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나쁜지를 설명을 하며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많은 것을 스폰지처럼 빨리 받아들이며 마음을 잘 열어줍니다. 학생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장점으로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이슈가 되는것은 2세, 3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워야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알리고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

교사로서, 여러 학생들의 성격과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미국에서 살고있는 한국인 학생,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학생들이 한국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교재연구와 학습방법,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며 학생들에게 정성과 관심을 갖고, 한국의 역사까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통해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차세대 교사들이 토론을 할 수 있는 행사나 콘퍼런스를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잘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들의 마음을 합쳐 함께 한국어 교육을 발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그전 세대보다 더 효과적이고 좋은 교육방법을 찾아 아이들에게 꿈을 이루게 할 수 있는 힘, 능력,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다.

14

교사 최 지 혜

페더럴웨이 통합 학교

1. 영역 A (단답형 질문)

- 1) 성별 - 여성 (female)
- 2) 연령대 (10s, 20s, 30s...) - 20s
- 3) 미국에 온 연령 - 10살 (초등학교 4학년)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 8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 아이들을 좋아하고 나의 재능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2. 영역 B

1) 학생들과의 관계:

• 너희의 친구 이자, 선배이자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다르므로, 어떤 방식이 맞고 틀리다고 단정 지을 수도, 또 어떤 방법이 더 좋은 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는 없다. 다만 나만의 방식을 찾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모든 학생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짧지도 그렇다고 길지도 않은 내 경험을 돌이켜 보고 생각해 본 결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나만의 방법은, 무섭고 거리감 느껴지는 선생님보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배울수 있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로 함께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 했을때에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들과의 관계 였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숙제를 많이 내주고 어려운 시험을 풀게 해도, 관계로 인해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관심이 없고, 수업 방식에 흥미가 없다면 억지로 하는 공부는 즐겁지도 않고 발전이 없으며 결국엔 남는 결과가 업기 때문이다.

• 학생들의 친구로서:

솔직히 난 우리 반 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다. 다른 반은 부모님보다도 선생님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는 것 에 비해, 나는 거의 큰 언니, 혹은 막내 이모 정도의 나이 차이 정도? 그래서 난 나의 학생들과 더욱더 소통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공부에만 너무 치우치기보단 여러 가지 학습과 놀이, 그리고 과제를 통해 즐겁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기도 하다. 내가 최근에 학생들과 한 과제 중 두 가지를 첨부해 보았다. 하나는 “내가 만약 발명가라면” 이라는 주제로 이런저런 발명품들을 친구들과 나누고 얘기해본 뒤, 미술용품들을 이용하여 나만의 발명품을 만들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 하였다 (사진 참고). 두 번째는 Color Beads를 통하여 나만의 이름표를 만드는 과제. 우리 한글학교는 매주 학생들이 이름표를 차기 때문에, 우리반 만의 독특한 이름표를 만들고 싶어서 계획하게 되었다.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책과 시험뿐만이 아닌 이런 색칠과 만들기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날씨가 좋은 봄이나 여름에는 밖으로 나가서 숨바꼭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수건 돌리기 등 체육 시간도 가지며, 또 특별한 한국 고유 명절에는 그 날에 맞게 음식도 먹어보고 선생님들께 절도 하며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닌 체험으로 배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찾아보고 계획하는 중이다.

• 선배로서:

나의 부모님은 결혼은 하시고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서 나를 가지셔서, 나의 국적은 미국이다.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몇 년 뒤,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모국인 한국을 알고 한글을 배우는 게 순서일 거라는 판단하에 나는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니다가 4학년을 마치고 한국어를 완전히 켜 후 미국으로 돌아와서 영어를 배우게 되었다. 처음 영어를 배웠을 때는 어찌나 힘들고 죽을 맛이던지.. 처음 보는 외국 아이들 사이에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도 모르겠는데 학교에 그나마 없던 몇 한국 친구들도 한국말을 제대로 못 하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학교에서 ESL 수업을 들으며 항상 알파벳을 반복하고 A 하면 APPLE, B 하면 BOY를 반복하니 따분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자니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들겠고. 결국엔 집에서 엄마를 붙잡고 단어 외우고 외국 친구들 쫓쫓 따라다니면서 대화하고 노력하다보니, 어느정도 영어도 늘었겠다. 워낙에 수학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이니 선생님들도 도움을 많이 주셔서 미국 온지 6개월 만에 선생님께 매달리고 사정해서 ESL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그뿐인가? 반에서 하는 작은 이야기 만들기 경연에서 당당히 일 등을 하여 친구들 앞에서 내가 만들 이야기도 발표하고 상도 받기도 했다. 학교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친구 그 친구들과 연락하면 이제 한국말로 대화 한다. 직업병인지 그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틀리게 말하면 고쳐주고 내가 한글학교에서 쓰는 교재도 가끔 보내주기도 한다.

결론은 나도 우리 반 학생들처럼 두 번 째 언어를 배우며 컸다는 점, 물론 내가 배운 두 번 째 언어인 영어와 내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어는 다르지만, 과정은 비슷하다는 점이다. 나는 우리 반 학생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학교생활을 이미 경험해본 선배로서, 내가 그 때를 돌이켜 봤을 때 즐겁게 공부 할 수 있는 방법과 가장 효율적이었던 공부 방법을 생각하며 수업을 준비하고는 한다.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 하는 공부중 몇가지는 끝말 잇기와 무지개 (내가 지은 제목이다). 끝말 잇기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수 있어서 더 즐겁게 배울수 있는 활동인데, 첨부한 끝말 잇기 문제지를 끝낸뒤 한 학생씩 칠판에 단어를 쓰고 다른 학생이 나와 그 뒤의 낱말을 이어 쓰는 공부인데,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 옆에 그림도 함께 그리도록 시킨다. 두번째 활동을 무지개. 무지개란 색깔을 공부할때 생각해낸 활동인데, 색깔마다 해당되는 단어, 동물, 과일들을 한명씩 발표하고 큰 종이에 그 색깔에 알 맞는 모든 그림을 그려서 작품으로 만들어 내는 과제이다. 이런식으로 학생들이 그저 쓰고 읽는데에 그치지 않고, 신나게 발표하고 옆에 친구들과 나누다 보면 더욱 더 즐겁고 뜨거운 공부시간이 빠르게 지나가 버리곤 한다.

• 교사로서:

위에처럼 나의 과거와 공부해온 과정을 참고하여 준비한 나의 수업 방식의 예를 들어 보면, 첫 주, 첫 교시에는 동물에 대해 배우고 이 교시에는 동물들을 이용하여 특징을 살린 문장을 만들어보고, 숙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받아쓰기하기 (부모님께 받아쓰기로 불러줄 문장들과 받아쓰기 빈 칸을 드려서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둘째 주에는 동물 이름으로 끝말잇기를 하기, 동물 하나를 정하여 그 동물에 대해 알아보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등, 무작정 같은 단어와 문장을 반복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관련된 단어들과 문장들을 읽고 쓰며 생각하고 발표하도록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미 숫자에서 달력 배우기, 달력을 그리면서 가족들의 생일과 중요한 날짜들 알기, 그리고 가족 관계도 공부 등 한 주제에서 열 가지로 뻗어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다 보니 처음 배운 것들도 잊지 않고 계속 복습과 예습을 반복할수 있게 되었다.

3. 영역 C

처음 한글학교 개교를 했을때 첫 교사로 시작을 하여 아직 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사이자 가장 경력이 오래된 교사 입니다. 한글학교에서 교사로서 제가 맡은일은, 학생들에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일이며 항상 즐겁고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이유는 나의 열정과 노력이 학생들의 실력 향상으로 항상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혹은 학기마다 시험을 보고, 여러가지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실력이 나날히 발전하는 모습을 체감하고, 학부모님들에게 확인을 받으며 교사로서의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책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책에 도입부, 과정 그리고 결말이 있듯이, 내 인생도 여러가지 이야기들과 경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내 인생에 한 4장, 5장쯤에는 내가 한글학교에서 경험하고 배운 시간이 있다면, 내가 만난 학생들의 인생 책에도 또한, 나와 함께한 한글학교 이야기가 적어도 몇 문장 정도는 들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 정말 그 이야기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절대 부끄럽지 않도록, 그 학생들에게 자랑스럽고 정말 후회 없는 시간이었다고 자신할만한 그런 이야기로 쓰여 있을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글쓰기 (독도, 내동생, 바이올린등)



내가 발명가라면 (언어연필, 입체 구입기, DNA총, 마술지도..)

15 교사 윤 성 주

산호세 천주교 한국학교

고등학교때 이민 와서 대학 졸업 후 뭔가 봉사를 하고 싶어서 성당 한글학교에서 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 동안 새로운 언어를 배워 공부하는 것이 무척 어렵게 느껴졌던 저는 뭔가 두가지 언어를 쓰는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며 도움을 주고 싶기도 하고 제가 더 편하게 느껴졌던 한국어로 뭔가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성당에서는 일요일 한시간 남짓 주어진 시간에 수업을 하는 상황이라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가르칠 수 없었고 그냥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정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학교에서도 일요일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세시간이라는 시간을 수업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아져서 더 많은 걸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열정과 의욕으로 가득차 수업준비를 하고 여기 저기서 복사한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학기 중간에 갑자기 결원이 생긴 자리에 들어간 교사라 학생들이 파악이 안된상태였습니다. 매 주 한 학생이 지각을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업에 방해는 되었지만 별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2 주 후 쯤 학부형께서 잠깐 만나자고 하셔서 수업 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학교에 오는 토요일 아침마다 구토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토요일 아침마다 한국 학교가 오기 싫어 구토를 하다니 그렇게 반학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사가 바뀐것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경력밖에 없었던 저에게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게 뭘까?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 그냥 봉사 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게 다 인가? 그 학부형은 아이의 구토를 매 주 보시면서 아이들 한국 학교에 데리고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 키워 본 경험도 없는 그냥 대학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 경험 많으신 교사 자격증 있는 많은 선생님들 사이에서 많은 걸 듣고 배우던 시절에 충격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던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수업시간이 되어야 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재미있고, 가고 싶은 수업시간이 되어야겠다. 아침에 오는 차 안에서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그래서 같이 뛰고 노래하고 율동하고 웃긴 표정을 하고 과장된 입 모양으로 올바른

발음을 가르치고, 뛰고 노래하며 여러가지 명사를 한국 말로 가르치고 그리고 맘껏 소리치며 노래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두번째는 이야기를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수업이어야겠다. 아이들은 집안이 투명하게 보일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 부부 싸움 이야기, 동생이 미운 이야기, 할머니가 선물을 사 주신 이야기, 어제 새로 산 운동화 자랑까지 아이들에게 맘껏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빨리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게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 줍니다.

세번째는 시험이 무섭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유난히 신경이 예민한 아이들은 (아마도 5살정도 연령대였던 것 같습니다.) 받아쓰기 때문에 무척 스트레스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20년도 넘는 시간이 지났고 아이들을 키워보니 귀중한 시간에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왜 힘들게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하는 균형있는 교육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많고 혼동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했던건 부모님들의 관심과 집에서 한국말을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절에 비하면 부모님들의 관심과 교육 열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주 한주 정성을 다 하는 교사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처럼 교사 자격증있는 교사도 아니었고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최종학력인 저로서는 겸손하게 많은 분들께 배우고 연구하고 정성을 다한 준비와 아이들과 교감을 위한 노력 이외에 할 수 있는 것 없었습니다.

몇 주 후에 저는 그 어린 친구의 어머니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쁜소식이었지요. 그 어린 친구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구토를 하지 않게 되었고 저와 2년 반이라는 시간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저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해 준 교사 생활 초기에 맡았던 그 학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요술 방망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해마다 이야기가 있고 학기마다 어려운 점이 있고 말은 반 마다 어려운 숙제 같은 학생들은 있습니다. 더 쉬워지지도 않고 점점 어려워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주 한주 에너지 꼭 채워서 같이 웃고 울고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시간에 소중한 생각과 마음이 커가고 한국의 일을 배워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인입양아의 한국교육과 한글학교, 가슴으로 낳는 사랑의 실천

지역사회 한인 입양가족을 만나 Buddy Family로 인연을 맺어 주말 한글학교입양반으로 연결된 세월이 20여년동안 언제나 입양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기위해, 적극적으로 한국문화행사를 참석/후원 한 한인입양부모님들과, 전국 곳곳에서 우리 한인 입양아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 교사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차세대 교사 연수회에서도 한인입양인들의 정체성과 뿌리교육을 한글학교에서 협력하는 방법들을 함께 나눌 수있어 감사드립니다.

1. 한인입양역사의 변천:

- 1) 우리나라 입양은 가정의 대 물림을 할 친아들이 없을 때 조카나 양자를 아들로 들였다.
- 2) 해외입양: 1953년 홀트씨가 미국으로 전쟁고아를 데리고 가서 시작한 해외 입양은 고아 또는 친권을 포기한 16만 4천여명이 2013년까지 홀트 아동복지회등 입양 단체를 통하여 북미와 서유럽 각국의 양부모를 만났다.
- 3) 국내입양: 우리사회의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자는데 뜻을 두고 1999년 범한 한국입양홍보회(엠펙 · MPAK, 회장 한연희)는 국내입양부모 모임 결성하고, 입양부모대회, 2002년 입양가족캠프, 2003년 입양아동 별캠프, 2004년 입양소식지 발간, 입양아 후원의 밤, 2005년 입양의 날 제정(5월11일), 전국입양가족 나눔축제, 2007년 입양 장학생선발, 2009년 입양청소년캠프, 2010년 입양홍보사진전, 입양어린이 합창단 창단, 2011년 입양합창단 정기공연 “입양어린이들, 행복을 노래하다” “가정찾아주기 캠페인” 릴레이 입양홍보 사진전 「세이아이러브유」 등 다양한 년중정기 행사로 입양사후 관리의 큰 몫을 담당하고, 한국내 공개입양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 4) 해외입양 마감: 한편 특히 장애입양을 많이 해주고 희망을 주던 해외입양이 2016년 1월1일 해외입양금지로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2. 한인입양 성공사례:

1) Stephen Morrison (최석춘) : 한국입양홍보회 (MPAK <http://www.mpak.org/>)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동화 <스티브 모리슨 이야기(글 강민숙 · 그림 임소영 · 진선아이)>는 한국입양홍보회 창설자인 스티브 모리슨의 실화이며, 양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이야기로서 우리 사회에 훈훈한 입양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가슴으로 낳는 사랑의 불씨 스티브 모리슨을 한국의 ‘거지소년’에서 미우주항공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만들었다.

존 모리슨 “네가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 사람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티브 모리슨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아름다운 삶은 멀리에 있지 않았어. 내게 사랑을 베풀어주신 그 분들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셨던 거야!’ -책 속에서

2) 입양, 가슴으로 낳는 사랑의 실천

“스티브,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좋은 결정을 내렸단다. 그 중 최고로 좋은 결정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두번째는 네 어머니와 결혼을 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우리 가정에 입양한 것이란다.” 아버지의 이 말에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생 이 말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책 속에서

3) 한국입양홍보회 (MPAK www.mpak.co.kr)

기독교 신앙에 기초, 모든 아이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라는 믿음속에 국내입양을 홍보, 장려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과 가정을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한국입양홍보회의 목적이다.



입양부 존 모리슨, 스티브 모리슨, 입양모

3. 한글학교 프로그램

1) 주말 학교 입양아반 운영

한인입양아들은 자연스럽게 매주 한국의 문화와 역사, 한글, 한인친구들을 만나 쉽게 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입양아 한글반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반 분반: 입양반 - Toddler 반(부모님과 함께 참석하는 반), 유치반: 영어로 한국어수업

2) 한국문화 캠프

가: 여름 한국문화 캠프

캠프장 주간 캠프 (4박5일), 일일 캠프, 오전 캠프, 저녁캠프, 주말캠프, 가족캠프

나: 지역연합캠프:개체 학교캠프, 두세학교가 모여서 하는 캠프등등

다: 한국원정캠프: 입양단체나 한국정부캠프

3) 로컬 문화 행사 참여 및 발표 (무용과 사물놀이 공연) 한국문화 캠프

가: Asian Culture Festival

나: Korean Culture Festival

다: 입양단체들의 문화행사 협찬 (구정파티, 년중 피크닉, 자체 학생들 축제등등)

라: 한글학교 지역협의회 문화행사에 참여 (민속축제, 피크닉, 구연 동화대회, 그림그리기대회, 캠프등등)

마: 박물관등 문화 행사 참여

바: 각 학군이나 학교별 문화행사에 참여 (Diversity Day, Culture Day....)

사: 미국 학교 학급행사 참여 - 한국을 소개한다.

4) 입양반 교재와 교수법 (많은 Hands on 교구 사용) 주말 학교 입양아반 운영

교재는 맞춤형국어 교재, Study Korean 동영상, Youtube 동영상, 한국 동요와 동화, 게임, 퍼즐 영어와 한어에 능통한 교사가 필요하며 교육학을 전공한 분들이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5) 한국학교 입양프로그램 사례

가 : 한국문화여름캠프 (Korean Culture Summer Day Camp)

행사: 6월 3째주 월-금, 캠프 9시-4시 한글학교에서

반구성: 유아반, 유치반, 울동 동요반, 기초 한국어공부, 사물놀이, 태권도교육(Mr. Hamilton),매일

한국음식실습, 생활예절반, 과학반 (정은하교사)등 다채로운 행사와 모든 반은 이중언어로

수업을 진행, 캠프학생, 담임교사, 초청교사, 특별활동반교사, 부모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심.

나: 입양모임 자체 연중행사 구정잔치 협찬행사:

행사: 일일 구정잔치 매해 2월 오전10시- 오후6시

행사협찬: 한국문화 발표 연습과 공연 -부채춤, 소고춤, 꼭두각시, 사물놀이, 인삿말, K-POP Dance

새바스테이션- 절하기와 새배, 한복입는법 알려주기, 스테이션 운영,

음식후원: 김밥, 불고기, 만두, 잡채, 떡등 후원, 문화체험 코너:태극기 만들기, 제기 만들기, 지도색칠, 색종이접기

한국의 소품 판매 및 전시: 키체인, 지우개, 연필, 양말, 티셔츠, 부채....

다: Cincinnati Museum Center “Asian Culture Fest”

행사: 매해 4월2째주 토요일 오전10시- 오후6시

행사협찬: 한국문화 발표 연습과 공연 - 부채춤, 소고춤, 꼭두각시, 사물놀이, 인삿말, K-POP Dance

문화테이블 운영: 한글로 이름 써주기, 태극기 만들기, 부채장식하기, 제기 만들기, 한국과자 맛보기 한국인형전시, 한국그릇과 수저전시, 한복입고 사진찍기, 한국티 맛보기, 윷놀이 한국포스터 전시, 컴퓨터로 동영상 보여주기

한국쇼케이스 30분: 태권도, 부채춤, 소고춤, 꼭두각시, 사물놀이, 인삿말, K-POP Dance, 합창 가야금연주, 한국동요와 율동

라: 재미한국학교중남부지역협의회 학생축제 참가

행사:오전10시- 오후5시 Camp Lebanon Retreat Center

대회참석: 그림그리기대회, 나의 꿈 말하기대회, 구연동화 말하기대회, 합창대회, 노래부르기 대회

문화스테이션: 사물놀이 맛보기, 한국전통마당놀이, 태권도 교실, 종이접기, 한국말 빙고, 딱지만들기, 오색 제기 만들기, 탈 색깔 칠하기,

마: 재미한국학교중남부지역협의회 청소년 리더십 캠프/ 입양연합캠프

행사: 매해 6월 첫째주 수목금토일(4박5일) Camp Lebanon Retreat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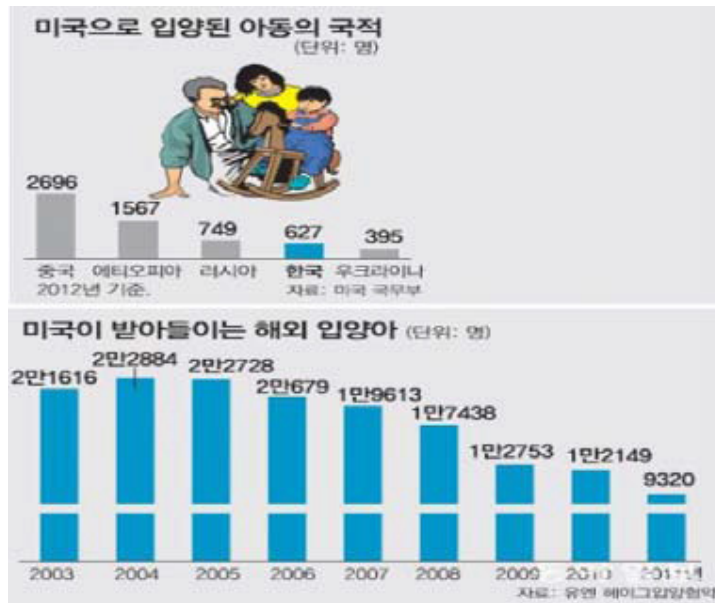
바: 재미한국학교 학술대회 목요특강 입양발표 (김인숙)

게스트 - 김한국(토마스케이), Mrs. Kroeger, Anna, 김상호

행사:2009년 7월 제 28차 재미한국학교학술대회 Orlando, FL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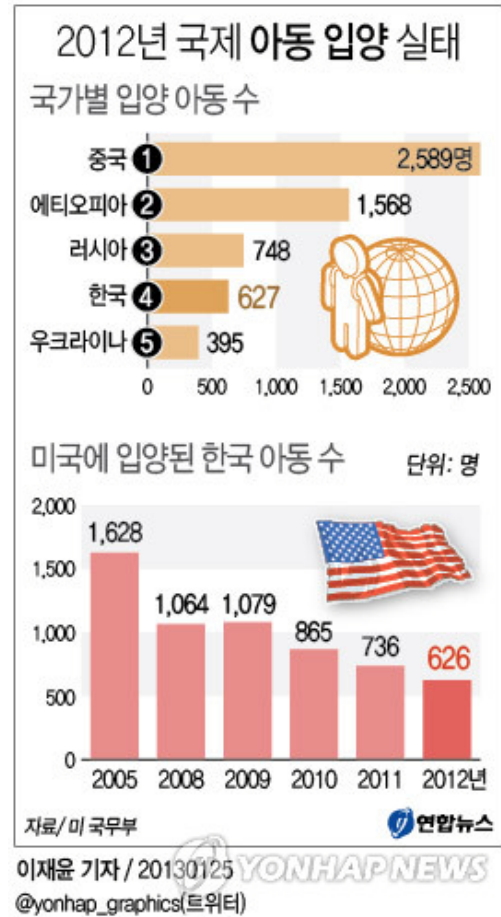
구 분		계	2005년 이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계	242,449	224,752	3,231	2,652	2,556	2,439	2,475	2,464	1,880
	국내	77,082 (31.8%)	67,607	1,332 (41.2%)	1,388 (52.3%)	1,306 (51.1%)	1,314 (53.9%)	1,462 (59.1%)	1,548 (62.8%)	1,125 (59.8%)
	국외	165,367 (68.2%)	157,145	1,899 (58.8%)	1,264 (47.7%)	1,250 (48.9%)	1,125 (46.1%)	1,013 (40.9%)	916 (37.2%)	755 (40.2%)



김한국 가족 사진



입양성인 김한국 (토마스 케이)



토마스케이 (김한국) 가족-현재 신시내티에 살고 있는 고마운 Kays씨 미국 입양가족이다. 토마스는 한국학교에서 5년 한국어를 공부했고, 지금은 미술대학을 나와 그래픽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한인회 임원으로 모든 디자인 일을 한다.

7 Reading Based on Korean Stories

1 Recommended for all the ages

1. The Firekeeper's Son -by Linda Sue Park
2. Mung-Mung -by Linda Sue Park
3. Bee-bimbab -by Linda Sue Park
4. Tap Dancing on the Roof -by Linda Sue Park
5. Halmoni's Day -by Edna Coe Bercaw
6. Halmoni and the Picnic -by Sook Nyul Choi
7. Yunmi and Halmoni's Trip -by Sook Nyul Choi
8. Good Fortune in a Wrapping -by Joan Schoettler
9. Sometimes I'm Bombaloo -by Yumi Heo
10. Moondog -by Yumi Heo
11. A is for Asia -By Cynthia Chin-Lee
12. My name is Yoon -by Helen Recorvits
13. Yoon and the Christmas Mitten -by Helen Recorvits
14. Korean Children's Favorite Stories - By Kim So-Un
15. Dear Juno -by Soyung Pak
16. Sumi's First Day of School -by Joung Un Kim and Soyung Pak
17. A Place To Grow -by Soyung Pak
18. The Green Grogs: A Korean Folktale -by Yumi Heo
19. Behind the Mask -by Yangsook Choi
20. Peach Heaven -by Yangsook Choi
21. The Sun Girl and the Moon Boy: A Korean Folktale - by Yangsook Choi
22. When you were born in Korea: A Memory Book for Children Adopted from Korea
23. Count Your Way Through Korea (Count Your Way) -by James Haskins
24. Teach Me Korean -By Judy Mahoney

25. New Clothes for New Year's Day -by Hyun-joo Bae
26. Let's Learn About Korea : Customs of Korea -by Suzanne Crowder Han
27. Tigers, Frogs, and Rice Cakes: A Book of Korean Proverbs -by Daniel D. Holt
28. Let's visit Korea -by Heung Gi Han
29. The Royal Bee -by Frances Park, Ginger Park
30. Milet Mini Picture Dictionary : English-Korean -by Sedat Turhan
31. My Cat copies Me -bu Yoon D.Kwon
32. Waiting for Mama -by Tae-Joon Lee
33. Where on Earth is My Bagel? -bu Frances Park, Ginger Park
34. The Best Older Sister -by Sook Nyul Choi
35. My Freedom Trip -by Frances Park, Ginger Park
36. Peacebound Trains -by Haemi Balgassi
37. Good-Bye, 382 Shin Dang Dong -by Frances Park
38. Korean Americans (Spirit of America, Our Cultural Heritage)
-by Cynthia Fitterer Klingel
39. Babies Can't Eat Kimchee! -by Nancy Patz
40. Cooper's lesson -by Sun Yung Shin
41. The Trip Back Home -by Janet S. Wong
42. Father's Rubber Shoes -by Yumi Heo
43. Aekyung's Dream -by Min Paek
44. The Have A Good Day Cafe -by Frances Park
45. Korean Girl and Boy Paper Dolls -www.doverpublications.com

2

Recommended for the kids from 3rd Grade

1. Seesaw Girl -by Linda Sue Park
2. A Single Shard -by Linda Sue Park
3. Archer's Quest -by Linda Sue Park

4. Project Mulberry -by Linda Sue Park
5. Kite Fighters -by Linda Sue Park
6. The Name Jar -by Yangsook Choi
7. The Royal Diaries, Sondok, Princess of the Moon and Stars
-by Sheri Holman
8. Land of Morning Calm: Korean Culture Then and Now -by John Stickler
9. Chi-Hoon : A Korean Girl -by Patricia I. McMahon
10. F is for Fabuloso -by Marie G.Lee
11. Tales of a Korean Grandmother: 32 Traditional Tales from Korea
-by Frances Carpenter

3

Recommended for the older students from 5th Grade

1. When My Name was Keoko -By Linda Sue Park
2. The Year of Impossible Goodbyes -by Sook Nyul Choi
3. Echoes of White Giraffe - by Sook Nyul Choi
4. Korean Voices: Growing Up During a Time of Crisis
5. -Download from the Korea Society's website
=> <http://www.koreasociety.org/>
6. Chung Hyo Ye (Ebook or Audio book) from the website,
=> www.koreanhero.net/www.kscpp.net

4 Recommended for the older students from 8th Grade

1. Lost Names -by Richard Kim
2. A Step From Heaven -by An Na
3. Gathering of Pearls -by Sook Nyul Choi
4. Still Life with Rice: A Young American Woman Discovers the Life and Legacy of Her Korean Grandmother-by Helie Lee
5. KoreAm Journal (Monthly Journal to provide a forum for English-speaking young Korean Americans. It includes feature stories, poetry, fiction, art work and photographs. Contact "koream@koreamjournal.com")

5 Websites You can Get Resources About Korea

1. Spotlight Korea: <http://spotlightkorea.org>

Spotlight Korea is a non-profit organization founded to enhance the presence of Korean history, culture, and art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2. Korea Foundation: <http://en.kf.or.kr>

The mission of The Korea Foundation is to promote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increase friendship and goodwill between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through various exchange programs.

3. Korea Society: <http://www.koreasociety.org>

THE KOREA SOCIETY is a private, nonprofit, nonpartisan, 501(c)(3) organization with individual and corporate members that is dedicated solely to the promotion of greater awareness,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n pursuit of its mission, the Society arranges programs that facilitate discussion, exchanges and research on topics of vital interest to both countries in the areas of public policy, business, education, intercultural relations and the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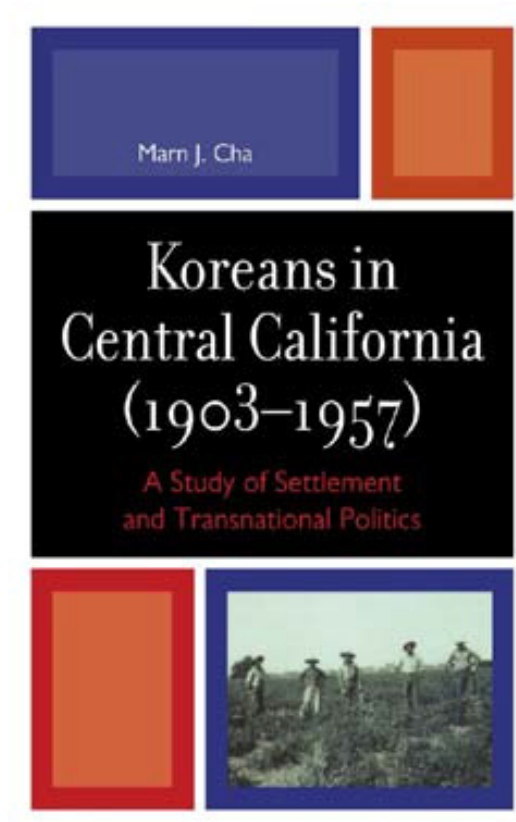
4. Education About Asia: www.aasianst.org

This website provides resources for K–12 teachers, includes excellent film reviews, and helps educators locate audio–visual resources for teaching and learning about China, Japan, Korea, and Southeast Asia.

****Korea: Lessons for High School Courses**

Created by the Korea Society and recipient of Buchanan Award in 2000. It includes exceptional lessons on topics: national treasurers, the miracle on the Han, the Japanese occupation, the Korean War, South Korea War, South Korean in War in Vietnam, and women. The Korean War lessons could be included in United States history classes. Available on the Korea Society.

참고 도서 Koreans in Central California



The Korean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signed a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in 1882. This treaty opened Korea to American missionaries who proselytized Christianity to the Koreans. When Hawaii sugar planters recruited Koreans to come to Hawaii to work in the Hawaii sugar plantations, they picked most of the Korean Hawaii emigrants from the Korean Christian converts. Between 1902 and 1905, some 7,000 of them immigrated to Hawaii. Of those 7,000, about 2,000 transmigrated to the mainland. Most of these Hawaii Korean trans-migrants settled on the West Coast, primarily in California. This book tells the Korean immigrants' life stories in California's eight San Joaquin Valley farm communities: Fresno, Hanford, Visalia, Dinuba, Reedley, Delano, Willows, and Maxwell. It describes how they survived through discrimination and injustices in early twentieth-century America, and also details the Korean immigrants' efforts to regain their lost motherland from Japanese colonialism (1910–1945).

8 참가자 명단

번호	지역	이름	영어이름	이메일	소속학교
1	콜로라도	유미순	Kristie Yoo	yketyoo@msn.com	새문
2		이승연	Angela Lee	angelaseungyeon@gmail.com	성로렌스
3	남서부	황수진	Sujin Hwang	hwangscass@gmail.com	D.R.A.W
4		한애경	Aekyong Han	grantsfarm2000@hotmail.com	The True Light
5	서북미	신성희	Esther S. Shin	Esthermsrd.tks@gmail.com	타코마
6		최지혜	Carol Choi	itscaarol@gmail.com	페더럴웨이 통합
7	북가주	송아리	Ari Song	arisong113@gmail.com	새하늘
8		송지은	Susie Coover	sscoover@msn.com	스탁톤 반석
9		강정아	Chong Kim	chong_ak@hotmail.com	실리콘밸리
10		이혜진	Elise Lee	Eliselee89@gmail.com	실리콘밸리
11		이슬기	Diane S Lee	dleedane88@gmail.com	모데스토
12		황진난	Jane Hwang	Jjhwang90@gmail.com	모퉁이돌
13		원은경	Lisa Won	lisawon70@gmail.com	다솜
14		석수진	SooJin Kirby	gina815@gmail.com	뉴라이프
15		윤성주	Michelle Yoon	kimsungjoo@hotmail.com	산호세 천주교
16	워싱턴	이승민	Dan Lee	lovedanlee@gmail.com	새언약
17	중남부	김인숙	In Kim	insook814@gmail.com	신시내티

참가자 사진

				
새문 교장 유미순	성로렌스 교사 이승연	D.R.A.W 교사 황수진	the true light 교사 한애경	타코마 교사 신성희
				
페더럴웨이 통합 교사 최지혜	새하늘 교사 송아리	스타톤반석 교장 송지은	실리콘밸리 교사 강정아	실리콘밸리 교사 이혜진
				
모데스토 교사 이슬기	모통이돌 교사 황진난	다솜 교감 원은경	뉴라이프 교장 석수진	산호세 천주교 교사 윤성주
		 차세대 교사 워크숍 “차세대 교사의 비전 과 리더쉽” 2015년 1월 17일~18일 [토-일] @ SF Airport 하이얏트 호텔 주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 후원: 카와이동포재단		
새언약한국학교 교장 이승민	신시네티한인장로교회 교장 김인숙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임원

번호	성명	영어 성명	직 위		이메일 주소
1	최미영	Miyoung Kim	President	총회장	president17@naks.org
2	김정자	Chung Ja Y Kim	Vice President	부회장	vp-ck@naks.org
3	김인숙	In Sook Kim	Vice President	부회장	vp-ik@naks.org
4	이승민	Seungmin Lee	Vice President	부회장	vp-sl@naks.org
5	오정선미	Sunmi Jung Oh	General Secretary	사무총장	gs@naks.org
6	유미순	Kristie Yoo	Treasurer	재무	treasurer@naks.org
7	송용주	Yong Joo Song	Editor-in-Chief	편집	editor@naks.org
8	한희영	Hee Young Han	Education	교육	edu@naks.org
9	권예순	Yeasoon Kwon	Press Release	홍보	pr@naks.org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회 임원

번호	성명	영어 성명	직 위		이메일 주소
1	장동구	DongKoo Chang	Chairman	이사장	dkoochang@gmail.com
2	김대영	Daeyoung Kim	Vice Chair	부이사장	daekim3@gmail.com
3	김미경	Mikyung Park	Secretary of the Board	총무이사	mipark@hotmail.com

memo